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투자 동향과 시사점

요 약	1
I. 조사 목적	6
II. 아세안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 동향	7
III.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해외직접투자 현황	30
IV. 아세안 투자 성과와 향후 투자방향	39
V. 결 론	51

작 성


선임조사역 도현철 (02-3779-6667)
loki@koreaexim.go.kr

< 요약 >

I. 조사 목적

□ 동남아의 새로운 신흥 시장으로 아세안(ASEAN)이 부상

- 아세안은 총인구 6.4억명, GDP 2.5조달러 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정식 출범

아세안 10개국 위치		아세안 개요	
		가입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종교	불교, 카톨릭, 이슬람교, 개신교 등
		정치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절대세습왕정, 입헌군주제, 사회주의공화제 등
		면적	448만km ² (세계면적의 3.3%)
		인구	6억 3,862만명(세계인구의 8.6%)
		GDP	2조 5,547억 달러(세계 GDP의 3.4%)
		교역	2조 2,555억 달러(세계 교역액의 7.0%)

□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 및 시장다변화를 위한 아세안의 중요성 대두

- 중국 경제의 고도화와 저부가가치 가공무역 투자환경 악화로 경제활동 인구가 풍부한 아세안이 중국의 대체투자지로 부상
-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의존도는 2016년 기준 23%로 높은 반면, 일본은 'China Plus one' 전략하에 아세안, 미국, 유럽으로 시장을 다변화

일본의 'China plus One', 'Thai plus One' 전략

- 일본은 중국투자 집중에 따른 차이나리스크 대비로 '05년 이후 'China plus One'으로 아세안 투자 증가, '10년 이후 태국 투자환경 악화를 계기로 'Thai plus One' 전략으로 이행
- 태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동차 및 전기전자 서플라이체인을 노동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으로 역내 이전하거나, 태국을 최종 생산 거점으로 재구축하여 주변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생산공장과 연계

II. 아세안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 동향

□ 아세안은 10개국 GDP 2.5조달러 규모의 지역 경제공동체로 고도 성장

○ GDP 규모 : '90년 3,425억 달러 → '16년 2조 5,547억달러(약 8배)

○ 무역 규모 : '90년 3,066억 달러 → '16년 2조 2,255억달러(약 7.3배)

□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2위 교역국, 3위 해외직접투자대상

○ 對아세안 투자규모('17년)는 48.3억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11.1%

○ 2008년부터 한·아세안 무역규모는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

○ 2014년부터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의 해외직접투자 대상

□ 아세안 10개국 앞 외국인투자는 2016년 기준 총 967억 달러

○ '16년 주요 투자국은 EU(305억달러), 일본(140억달러), 미국(116억달러), 중국(92억달러), 한국(59억달러) 등

□ 일본,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對아세안 투자비중 증가

○ 일본은 투자 분산 차원에서 “China+1” 전략하에 對아세안 투자 증가

- 일본의 투자 비중 : '14년 9.8% → '15년 12.1% → '16년 14.5%

○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에 따른 동남아 협력관계 강화 목적의 투자 증가

- 중국의 투자 비중 : '14년 4.6% → '15년 5.3% → '16년 9.5%

□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는 풍부한 저임노동력이 대표적 경쟁력

○ VIP 3개국은 203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세 지속

○ 중산층 가구비중이 확대되면서 국내소비 증가로 내수시장 확대

□ 세계은행은 아세안 각국이 정부주도의 개방과 규제완화조치로 최근 4년간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III.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해외직접투자 현황

□ 對아세안 투자규모('17년)는 48.3억 달러로 '10년부터 대중 투자를 추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액 434.5억 달러의 11.1% 차지

○ 對아세안 투자 비중 : '04년 8.6% → '13년 12.6% → '17년 11.1%

○ 대중국 투자 비중 : '04년 37.3% → '13년 16.9% → '17년 6.8%

[국가별]

□ 베트남(40.4%), 싱가포르(21.0%), 인도네시아(13.8%) 3국에 투자 집중

○ 누적기준 베트남 172억 달러, 인도네시아 103억 달러, 싱가포르 99억 달러

□ 베트남은 제조업, 인도네시아는 제조업과 광업, 싱가포르는 도소매업 중심

[업종별]

□ 아세안의 최대투자업종은 제조업으로 아세안은 해외생산기지 역할 수행

○ '17년 제조업 45.7%, 금융보험업 19.0%, 도소매업 7.2%

□ '17년 아세안이 최대 제조업 투자국으로 부상

* 제조업중 투자액('17년) : 아세안 23.1억 달러, 중국 21.3억 달러, 베트남 13.9억 달러

□ '90년대에는 전자부품, 섬유제품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 '00년대 이후로는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중 투자가 중심

[투자목적별]

□ 아세안 투자는 현지시장 진출목적의 투자가 중심

○ '17년 현지시장진출 54.2%, 제3국진출 16.5%, 저임금활용 13.6%

IV. 아세안 투자성과와 향후 투자방향

1. 對아세안 투자 성과

□ (매출액) 아세안 현지법인의 2016년 총 매출액은 1,052억 달러로 우리나라 현지법인 총 매출액 6,422억 달러의 16.3%

□ (당기순이익) 아세안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기준 21.3억 달러로 현지법인 총 당기순이익 90.3억 달러의 23.6%

□ (투자수익) '16년 한국투자자가 아세안 현지법인에서 취득한 투자수익*은 21.5억 달러로, 이를 투자잔액으로 나눈 투자수익률은 8.5%

* 투자수익 : 투자자순이익(당기순이익X한국 지분율)+로열티+대부이자

○ '16년 아세안 투자수익 21.5억 달러는 투자자순이익 17.5억 달러, 대부이자 0.8억 달러, 로열티 3.2억 달러로 구성

최근 5년간 아세안 현지법인 투자수익*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아세안	942	1,838	1,801	1,434	2,149
싱가포르	△212	884	765	875	909
베트남	288	545	242	44	708
인도네시아	342	76	171	△214	300
말레이시아	92	35	115	156	295
중국	7,130	10,152	8,515	4,988	7,145
미국	2,594	2,028	2,243	△624	876
전세계	14,696	16,917	13,596	3,653	11,534

* 투자수익 : 투자자순이익(당기순이익X한국 지분율)+로열티+대부이자

□ 아세안 진출 현지법인의 최근 5년간 한국 원자재 매입 비중이 지속 증가 하여 우리기업의 아세안 수출증가에 기여

○ 한국 수입 비중 : '12년 32.8% → '14년 38.9% → '16년 40.3%

2. 향후 對아세안 투자 방향

- **(투자 분산)** 중국 및 미국에 집중된 해외직접투자에서 성장가능성과 교역 비중이 높은 아세안으로의 투자 다각화 필요
- **(지역 생산네트워크 구축)** 對아세안 투자는 가맹국간 투자 우위성과 특성에 따라 역내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바람직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제조업 생산거점지역, 말레이시아는 서비스산업 거점, 싱가포르를 역내총괄본부와 R&D 센터로 활용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CLM 지역은 저렴한 노동비용을 활용하여 역내 제조업 생산네트워크로 편입 추진
- **(현지화 추진)** 원자재·부품의 현지조달비중 제고로 생산효율성 향상과 현지 기업과의 상생경영을 통한 기업가치를 제고
- **(현지시장 확보)** 아세안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세와 중산층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업 투자비중 확대
- **(아세안 인프라 투자 확대)** 아세안은 역내 연계성(connectivity) 개선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016~30년까지 3조 3천억 달러의 수요가 추정
 - 아세안 국가들의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정부 투자재원은 3~40%에 불과
 - 인프라시장과 에너지 등 자원 부문은 대규모 자본조달 능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조유자를 전략적으로 지원 필요

I 조사 목적

- 동남아의 새로운 신흥 시장으로 아세안(ASEAN)¹⁾이 부상
 - 아세안은 1967년 동남아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협력기구로 출범한 이후 10개국으로 확대되어,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²⁾로 정식 출범
 - 아세안은 총인구 6.4억명, GDP 2.5조달러 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2012~2016년 연평균 5.1%의 경제성장률로 같은 기간 세계성장률 2.5%를 상회하여 빠른 성장을 시현 중
-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대두
 - 우리나라의 최대 제조업 투자대상국인 중국 경제의 고도화로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기술혁신·산업고도화 관련 투자는 장려하되, 저부가가치 가공무역 투자는 규제 강화 추세
 - 동기간 저임금의 경제활동인구가 풍부한 아세안이 중국의 대체 투자지로 부상
-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 낮출 필요
 -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중 교역의존도가 지속 상승하여 2016년 기준 23% 수준까지 증가
 -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는 중국 경제 성장의 수혜를 보는 이점이 있지만, 반면 중국과의 외교·통상 마찰, 중국 경제 침체기에는 반대로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1)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을 줄여서 아세안(ASEAN)이라고 함.

2)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 AEC)는 동남아시아 국가가 상호 필요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한 개도국간 지역무역협정으로 '25년까지 완전한 경제통합 목표

○ 일본은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China Plus one(China+1)’ 전략을 채택하고 이후 아세안, 미국, 유럽으로 시장을 **다변화** 왔음.

- 우리나라도 시장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에 대한 교역과 투자비중을 높일 필요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기업이 시장다변화 차원에서 아세안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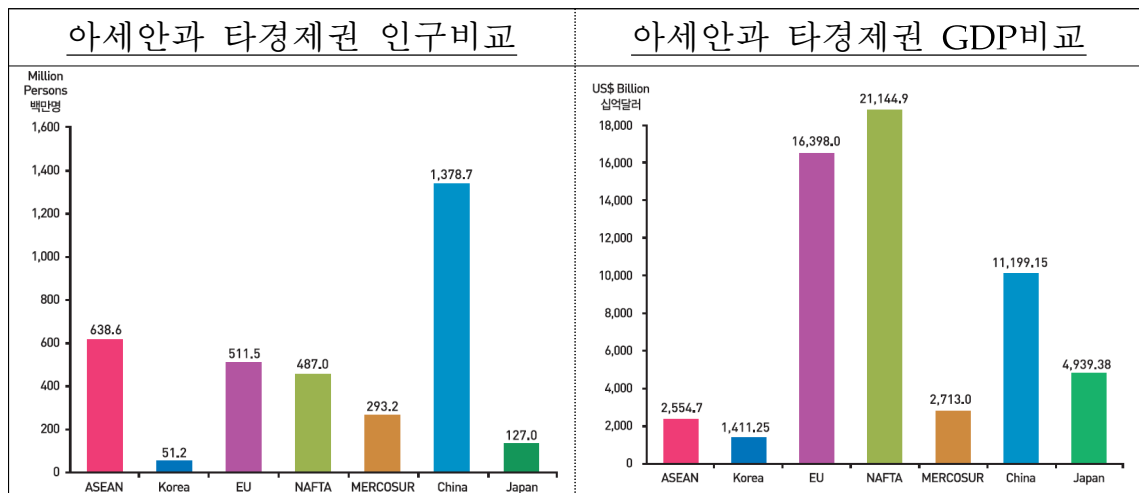
아세안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 동향

1. 아세안 개요 및 경제 규모

□ 아세안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10개국 총인구 6.4억명, GDP 2.5조달러 규모의 지역 경제 공동체임

아세안 10개국 위치		아세안 개요	
		가입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종교	불교, 카톨릭, 이슬람교, 개신교 등
		정치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절대세습왕정, 입헌군주제, 사회주의공화제 등
		면적	448만km ² (세계면적의 3.3%)
		인구	6억 3,862만명(세계인구의 8.6%)
		GDP	2조 5,547억 달러(세계 GDP의 3.4%)
		교역	2조 2,555억 달러(세계 교역액의 7.0%)

- 아세안은 주요 경제권역 중 EU(5.1억 명)보다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체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1.8배 수준임



자료) ASEAN-KOREA Centre 한아세안통계집 2017

- 아세안은 최근 10여년간 세계 평균 대비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여 경제규모 및 무역규모 큰 폭 증가
- 아세안 10개국 GDP 규모는 1990년 3,425억 달러에서 2016년 2조 5,547억달러로 약 8배 증가하였으며, 세계 GDP 대비 비중은 동기간 1.5%에서 3.4%로 증가

아세안과 기타 지역공동체 비교('16년)

(단위: 명, 달러)

구 분	가맹국	인구	GDP	1인당 GDP	무역량
아세안	10개국	6억 3,862만	2조5,547억	4,000	2조2,555억
EU	28개국	5억 1,150만	16조3,980억	32,059	10조6,292억
NAFTA	3개국	4억 8,695만	21조1,449억	43,423	5조2,420억

자료) 면적, 인구 GDP : World Bank, 무역량 :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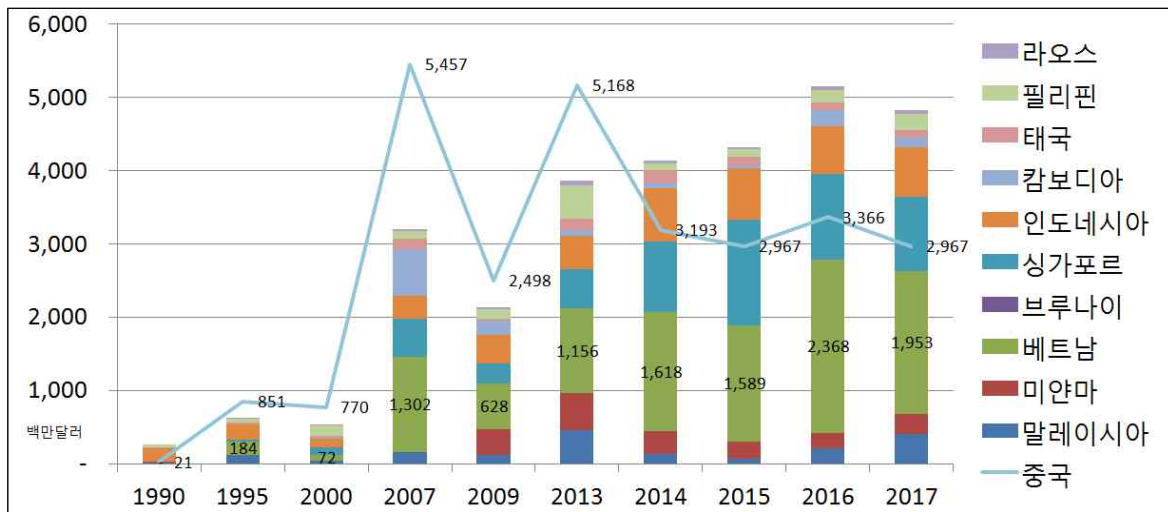
○ 무역 규모는 1990년 3,066억 달러에서 2016년 2조 2,255억 달러로 약 7.3배 증가하였으며, 세계 무역규모 대비 비중은 동기간 4.3%에서 7.1%로 증가

□ 한국입장에서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2위 교역국이며, 미국과 중국에 이은 3위 해외직접투자대상

○ 對아세안 투자규모('17년)는 48.3억 달러로, 우리나라 해외직접 투자액 434.5억 달러의 11.1%를 차지

- 對아세안 투자 추이(달러) : '91년 3.3억 → '97년 6.4억 → '08년 37.7억 → '16년 51.6억 → '17년 48.3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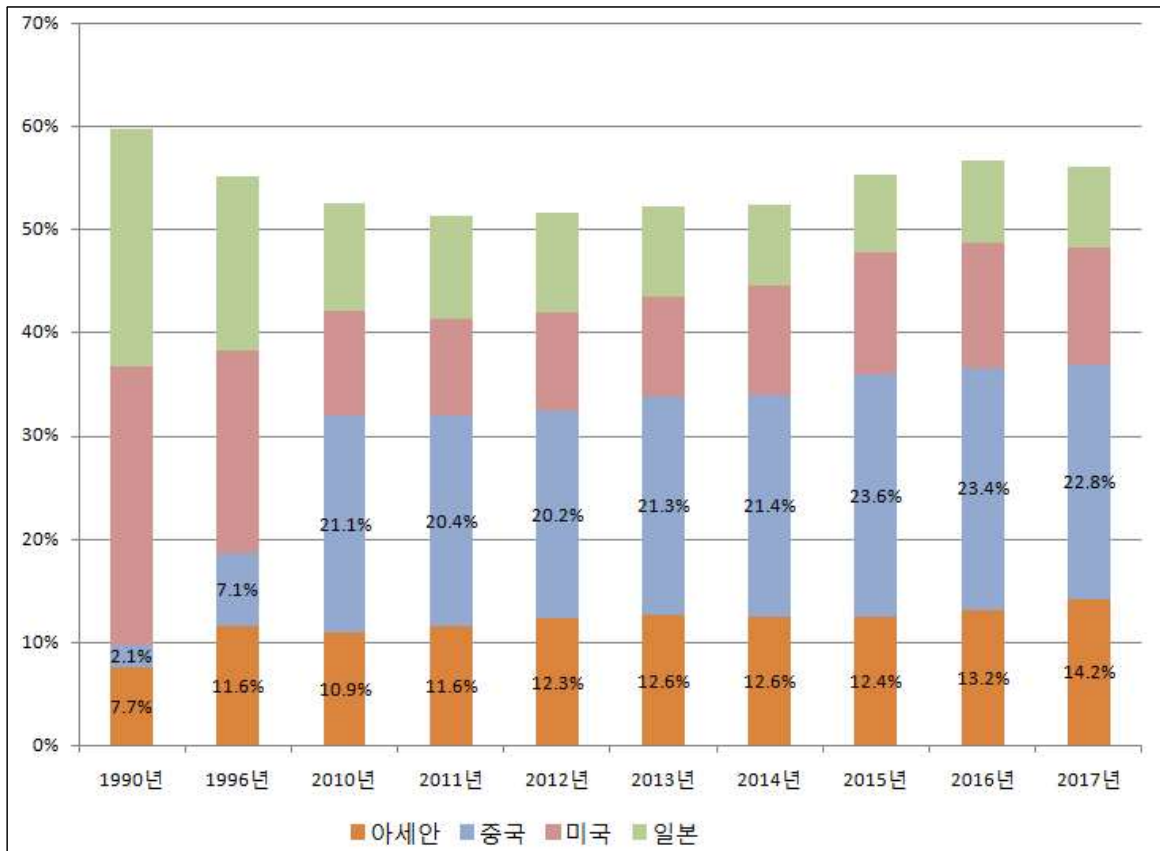
對아세안 해외직접투자 금액 및 비중 추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역의존도는 증가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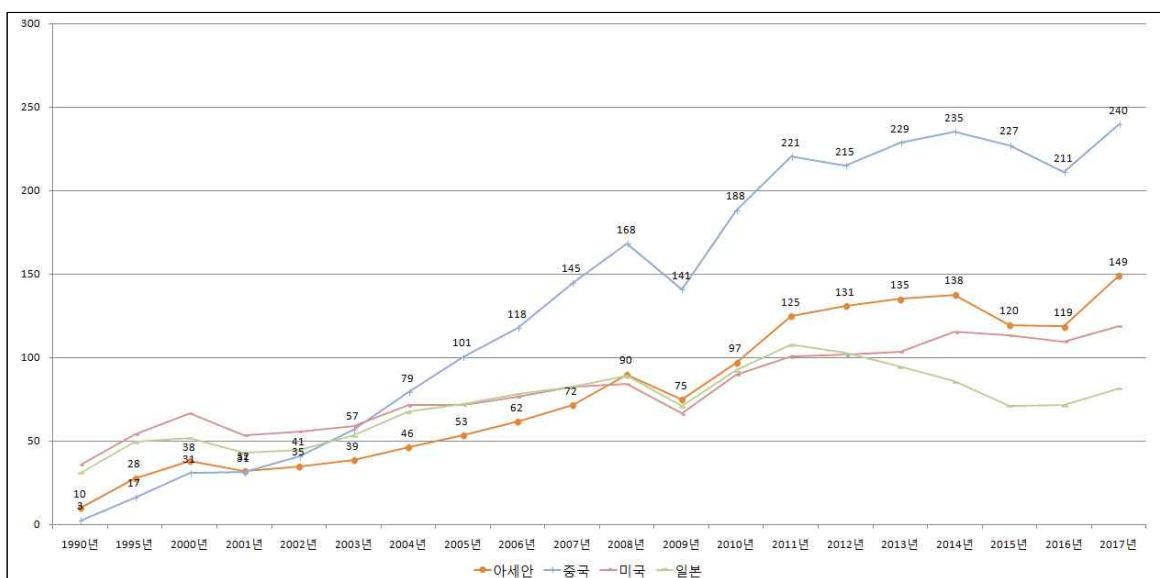
- 2008년부터 한·아세안 무역규모는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
- '90~'17년 사이, 한·아세안 간 무역규모는 103억 달러에서 '17년 1,491억 달러로 연평균 12.1% 증가, 규모로는 약 14.5배 증가
- 동기간, 한국의 수출, 수입 총액 중 對아세안 비중은 '90년의 8.0%, 7.3%에서 '17년 16.6%, 11.2%로 증가

한국의 주요국 교역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바탕으로 자체 작성.

한국과 아세안 교역량 추이(억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 미·일 교역비중은 감소세, 아세안·중국은 증가세

- 1990~2017년 사이, 우리나라의 對일본 교역비중은 23.1%에서 7.8%로 꾸준히 감소, 동기간 미국에 대한 교역비중도 26.9%에서 11.3%로 감소
- 한편, 對중국 교역비중은 1990년 2.1%에서 지속적인 확대를 기록하여, 2015년 23.6%, 2017년에는 22.8%로 최대교역국이며, 아세안 교역비중은 1990년 7.7%에서 2017년에는 14.2%로 증가

□ OECD는 아세안 국가들은 향후 5년(2018~22)간 연평균 5.2%의 성장세를 전망

○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의 국가들이 민간 소비와 인프라 투자 증가로 높은 성장세 시현 예상

아세안, 중국, 인도의 실질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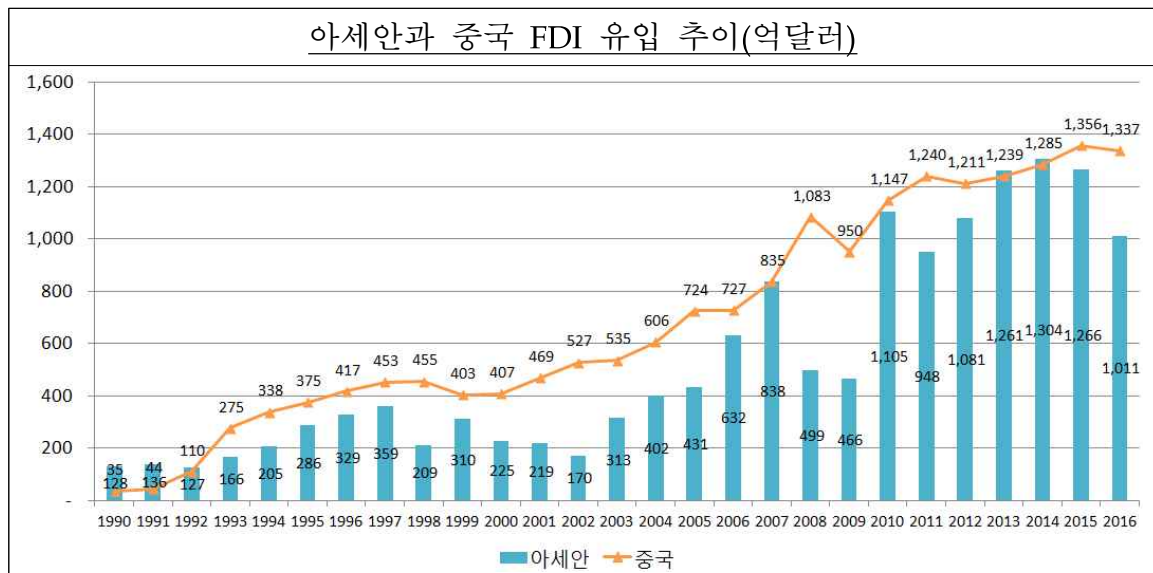
	2016	2017	2018~22(평균)	2011~15(평균)
인도네시아	5	5	5.4	5.5
말레이시아	4.2	5.5	4.9	5.3
필리핀	6.9	6.6	6.4	5.9
태국	3.2	3.8	3.6	2.9
베트남	6.2	6.3	6.2	5.6
브루나이	-2.5	0	0.5	-0.1
싱가포르	2	3.2	2.3	4.1
캄보디아	6.9	7.1	7.2	7.2
라오스	7	6.9	7.1	7.9
미얀마	5.9	7.2	7.4	7.3
중국	6.7	6.8	6.2	7.9
인도	7.1	6.6	7.3	6.8
아세안 평균	4.8	5.1	5.2	5.1
아세안,중국,인도 평균	6.4	6.4	6.3	7.1

자료) 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 2018: OECD

2. 對아세안 외국인투자 동향

□ 아세안 10개국 앞 외국인투자는 2016년 기준 총 967억 달러로 전세계 해외투자액 1조 7,464억 달러의 5.5%를 차지

○ 중국 경제개방정책의 진전으로 '93년 이후 중국 앞 외국인 투자가 아세안을 상회하여, '02년에는 3.1배까지 차이가 벌어졌으나, 중국 투자환경이 악화한 '10년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



자료) UNCTAD.

○ 중국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던 '00~'02년, 아시아 경제위기였던 '08~'09년을 제외하면 對아세안 해외직접투자는 중국에 대한 투자 증가와 비슷한 상승세를 시현

□ 아세안 앞 외국인 투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 추세

○ 아세안의 성장 잠재력이 부각되고 중국의 고속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대체 투자지로 아세안이 부각

□ '16년 아세안 앞 주요 투자국은 EU(305억달러), 아세안(239억 달러), 일본(140억달러), 미국(116억달러), 중국(92억달러), 한국 (59억달러) 등임

○ 투자비중 : EU 31%, 아세안 25%, 일본 15%, 미국 12%, 중국 9%, 한국 6%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금액			비중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아	세	21,556	21,340	23,948	16.2	17.5	24.8
E	U	37,861	20,834	30,465	28.5	17.1	31.5
일	본	12,982	14,738	13,989	9.8	12.1	14.5
미	국	13,578	23,379	11,657	10.2	19.2	12.1
중	국	6,185	6,412	9,211	4.6	5.3	9.5
대	한	4,690	5,704	5,890	3.5	4.7	6.1
호	주	4,495	1,935	3,433	3.4	1.6	3.5
홍	콩	8,627	4,060	9,608	6.5	3.3	9.9
대	만	1,873	2,341	4,154	1.4	1.9	4.3
인	도	1,216	962	1,049	0.9	0.8	1.1
상	위	113,063	101,705	113,402	85.0	83.6	117.2
기	타	19,994	19,916	△16,679	15.0	16.4	△17.2
총	합	133,057	121,621	96,723	100.0	100.0	100.0

자료) AS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 주요 투자국 중 일본,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對아세안 투자비중이 증가 추세

○ 일본은 2012년 중국의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투자 분산 차원에서 “China +1”전략을 채택하고 對아세안 투자 증가

- 일본의 투자 비중 : '14년 9.8% → '15년 12.1% → '16년 14.5%

-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에 따른 동남아와의 협력관계 강화 및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가 증가

- 중국의 투자 비중 : '14년 4.6% → '15년 5.3% → '16년 9.5%

- 아세안 국가의 투자는 주로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

아세안에 대한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6년)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제조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기 타	합 계
투자금액	8,013	33,940	18,428	7,775	28,567	96,723
비 중	8.3	35.1	19.1	8.0	29.5	100.0

자료) UNCTAD Asean Investment Report 2017

- 투자국별로는 일본과 한국은 제조업 위주로 투자하는 반면, 미국과 EU는 금융보험업과 도소매업 중심으로 투자

- 중국은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중심으로 투자

아세안에 대한 국가별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6년)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일 본	미 국	E U	중 국	아세안	한 국	합 계
광 업	957	△1,049	837	115	1,190	38	3,885
제 조 업	23,747	△10,024	△11,081	△6,499	8,309	2,798	8,013
도 소 매 업	1,761	1,114	8,427	3,081	483	438	18,428
운수창고업	736	314	1,623	2,181	451	208	4,796
금융보험업	△17,237	20,596	18,759	6,700	4,928	1,239	33,941
부 동 산 업	431	414	426	2,022	2,800	328	7,776
기 타	3,594	291	△11,473	1,610	5,787	840	19,884
합 계	13,989	11,656	30,464	9,210	23,948	5,889	96,723

자료) UNCTAD Asean Investment Report 2017

<일본의 China Plus 1 전략>

□ '12년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크게 감소, “China +1” 전략으로 아세안 투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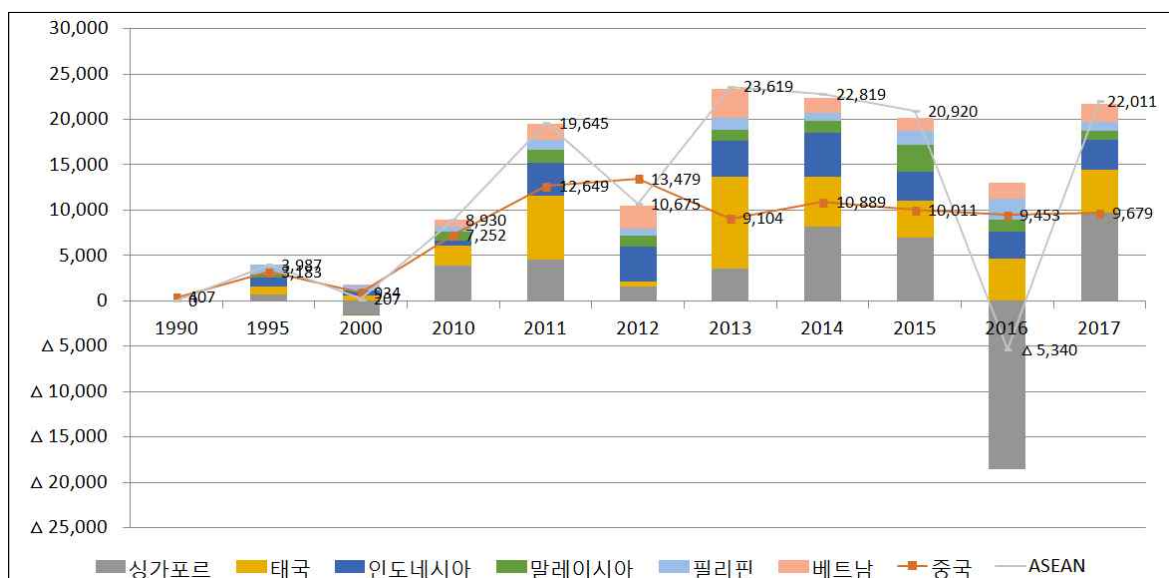
○ 일본의 최근 5년('13~'17년)간 해외직접투자액은 7,539억 달러로 '98~'02년 간 1,490억 달러 대비 5.1배 증가

○ 대중국 직접투자가 '13년 이후 연간 100억 달러 수준으로 정체된 반면 동기간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중국 투자의 2배를 상회하는 200억 달러 수준을 시현*

* '16년에는 소프트뱅크의 싱가포르 현지법인의 본사 앞 대규모 매당(2조 3,729억엔)으로 53억달러의 직접투자 회수 시현

일본의 아세안 및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추이(Flow기준)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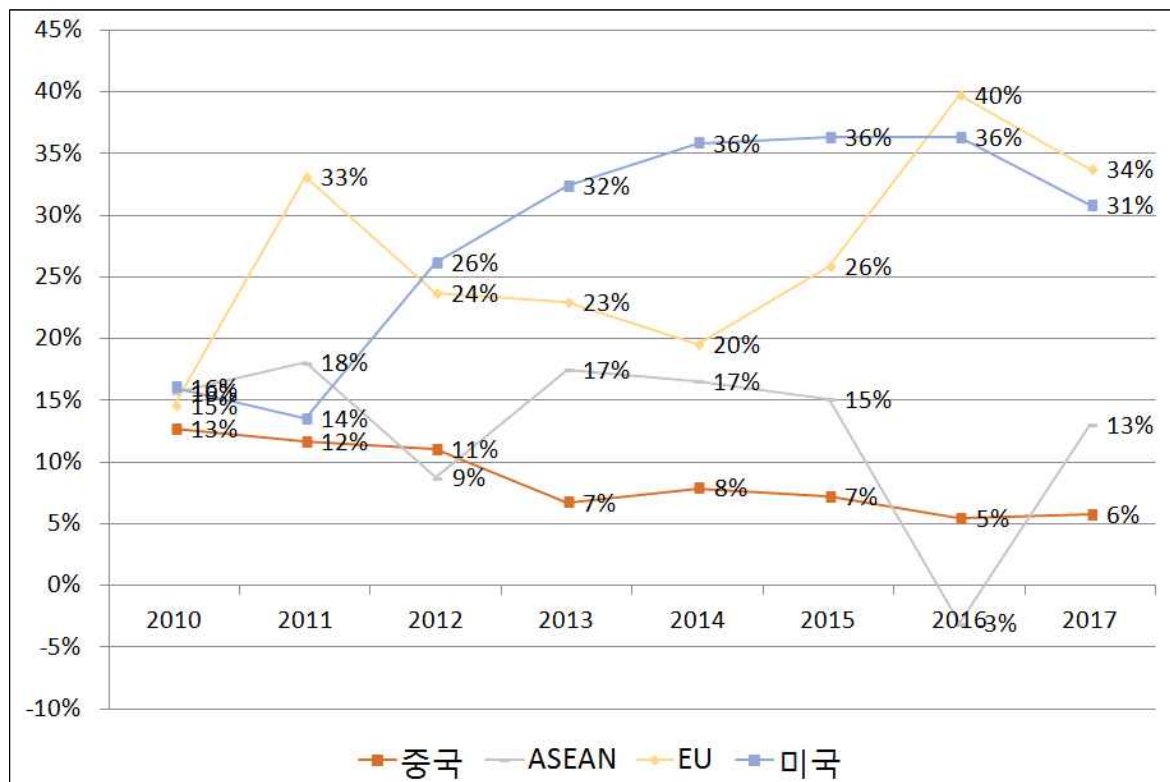


자료) 일본 재무성, JETRO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일본의 중국 투자비중은 '11년 11.6%에서 '17년 5.7%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 아세안 투자비중은 '11년 18.1%에서 '17년 13.1%로 상대적으로 투자비중 하락폭이 적게 나타남

- 중국과 아세안의 투자하락세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에 대한 비제조업 투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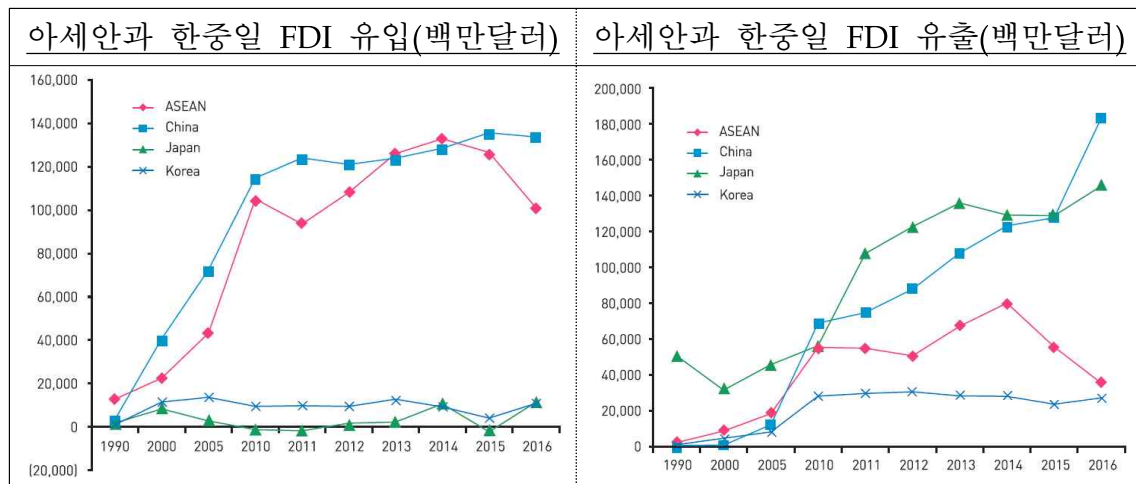
일본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비중 추이



자료) 일본 재무성, JETRO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04년 일본의 중국투자 비중이 18.9%를 기록한 이후,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China +1' 전략에 따라 미국·유럽·아세안·중국 등 투자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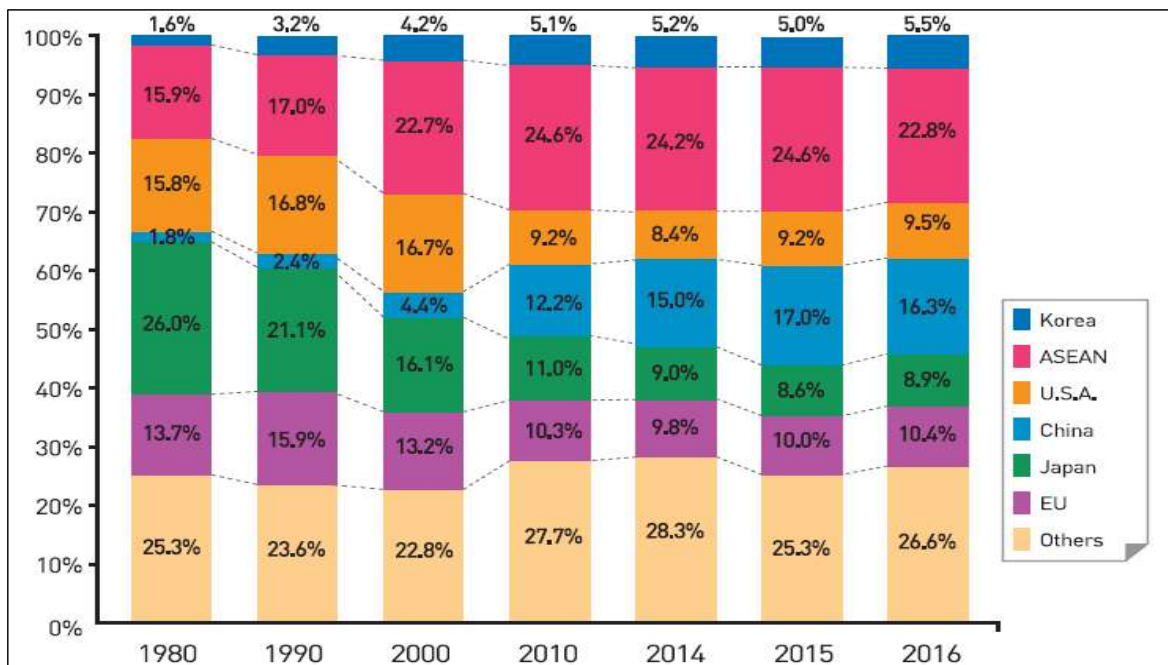
- '90년 이후 아세안과 중국에 대한 FDI 직접 유입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증가, '10년 이후 1천억 달러 이상을 시현
- 중국은 '16년 FDI 유출이 유입을 상회하는 순FDI유출국으로 전환, 아세안은 역내 FDI 유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자료) UNCTAD. 한-아세안 센터.

- 아세안 역내 무역비율(역내무역액/총무역액)은 1980년대 16% 수준에서, 2000년대에는 25%대로 증가

아세안의 주요 무역 상대국



자료)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IMF), ASEAN-KOREA Centre

- 2005년 아세안-중국 FTA(ACFTA) 발효 이후, 역내무역비율과 함께 중국과의 무역비율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아세안과 중국 간 전자기기류 부품의 수출입, 인도네시아로부터 중국으로의 석탄수출이 증가하면서 아세안과 중국간 무역 확대
- 아세안의 최대무역상대국은 '16년 현재 중국 16.3%('90년 2.4%), 일본 8.9%(26.0%), 한국 5.5%(3.2%) 수준으로 무역 면에서 중국 의존도는 향후 심화될 전망
 - ACFTA 효과로 아세안과 중국의 무역이 급증하면서 아세안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향후 경쟁관계에서 협조 체제로 변동해 나갈 가능성이 커짐

3. 아세안 투자 환경

- 아세안 국가중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활발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을 중심으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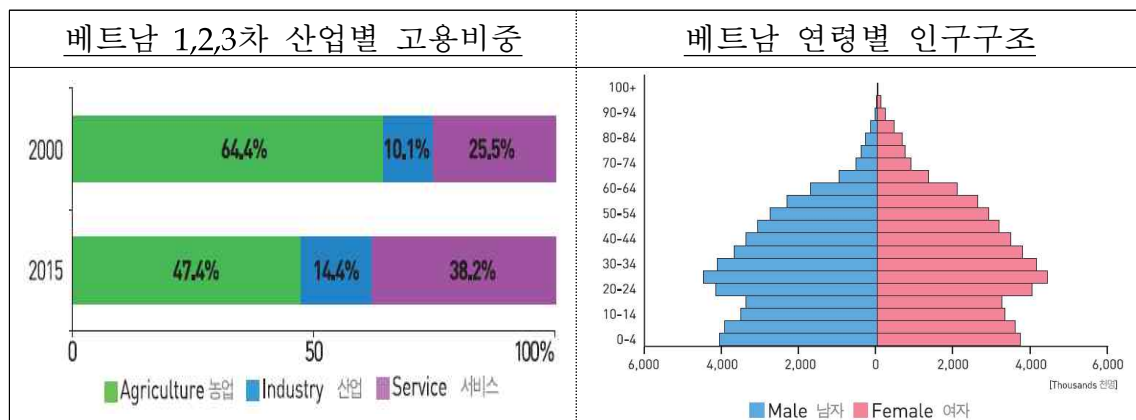
가. 베트남

- (풍부한 노동력) 대규모 인구에 기반한 풍부한 노동력은 베트남의 대표적 경쟁력
- 베트남('16년말, 약 9,457만명)은 세계 14위의 인구 대국으로 2025년에는 1억명을 돌파하여 2050년까지 지속 증가 전망
- 특히,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7,100만명에 도달 예상
 - 다만,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0.8%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 전망

베트남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향후 추이(만명)



자료) World Bank Database



자료) United Nations. 한-아세안 센터.

□ (중산층³⁾의 증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중산층 비율이 증가하여 소비수요 증가

○ 베트남의 일인당 소득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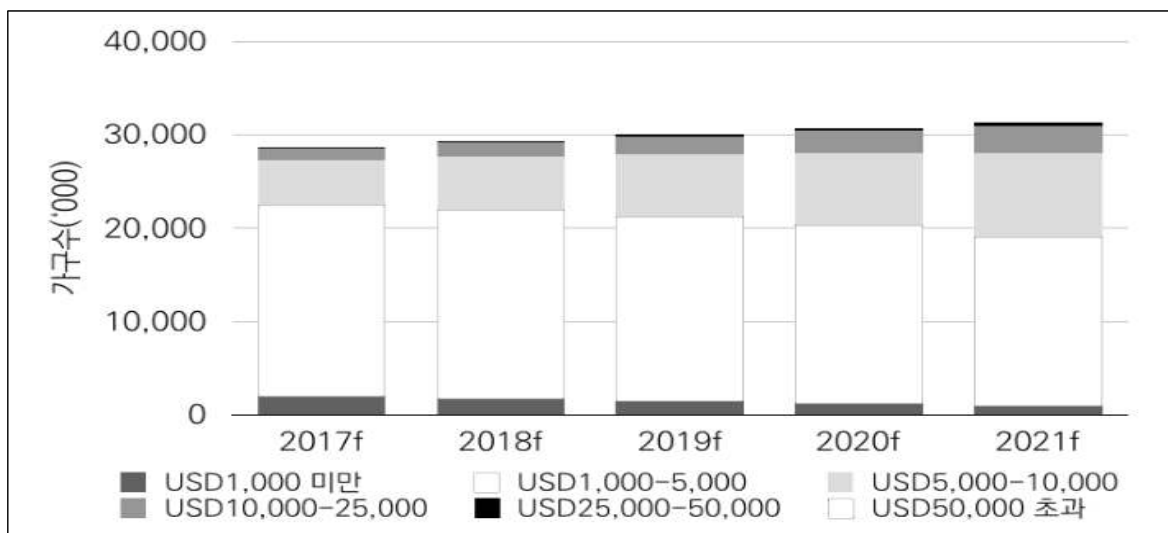
- 2016년 기준 베트남의 일인당 GDP는 2,171달러로 2000년 388달러 이후 연평균 11.6%씩 증가

3) 연간 가구 가처분소득이 US\$5,000~35,000 수준을 의미

-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중산층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소비 시장 확대 전망

- Euro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중산층 가구는 '17년 1,146만 가구(약 42%)에서 '22년 1,660만 가구로 증가 예상

소득 수준별 베트남 가구 수 비중



자료) KOTRA 베트남 호치민 무역관, BMI Research

- (투자환경 개선) 베트남은 정치적 안정과 정부 주도의 적극적 대외 개방정책으로 투자환경 개선추세

- 베트남은 TPP, 동아시아 지역포괄적경제연계(RCEP), EU와의 EV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

- EVFTA는 2015년 최종합의를 거쳐 2018년 발효 예정

- 세계은행은 Doing Business 2018보고서에서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을 2014년 99위에서 2018년 68위로 평가

베트남 Doing Business Index, 2018

구 분	종합		창업	전력수급	자금조달	국제교역	계약이행	파산
	2014	2018						
베 트 남	99	68	123	64	29	94	66	129
대 한 민 국	7	4	9	2	55	33	1	5
중 국	96	78	93	98	68	97	5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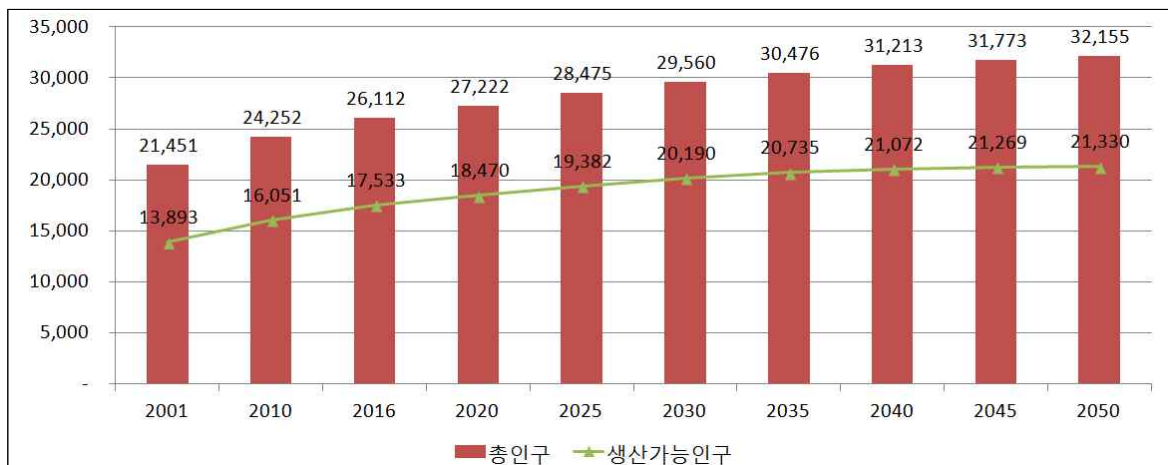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Doing Business 2013, 2017)

- 적극적 대외개방정책 추진 결과, 2005년 33억 달러였던 외국인직접투자는 2016년 158억 달러로 급증

나.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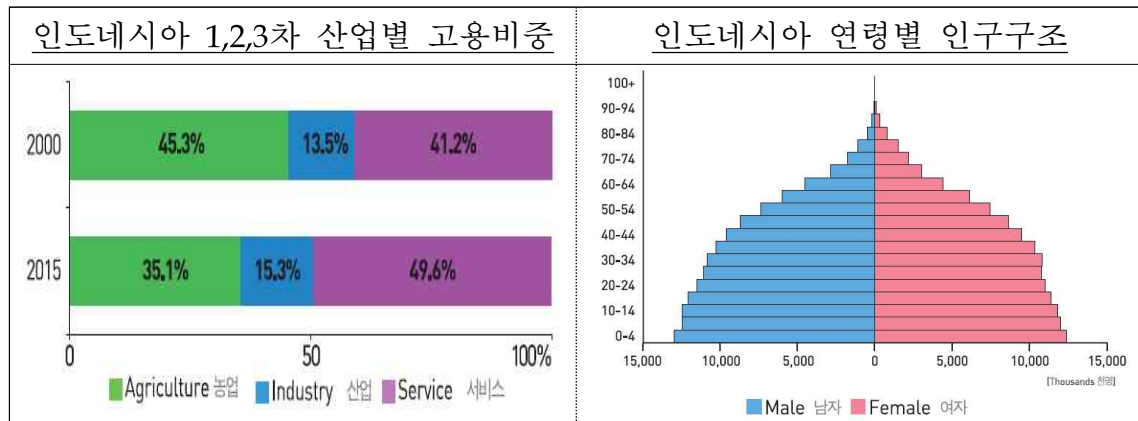
- (풍부한 노동력) 세계 4위의 대규모 인구(약 2.6억명)에 바탕을 둔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
- 2016년 인도네시아 인구('16년말, 2억 6,058만명)는 아세안 전체 인구의 40.8%를 차지하여 2050년까지는 총인구 증가 전망
-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

인도네시아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향후 추이(만명)



자료) World Bank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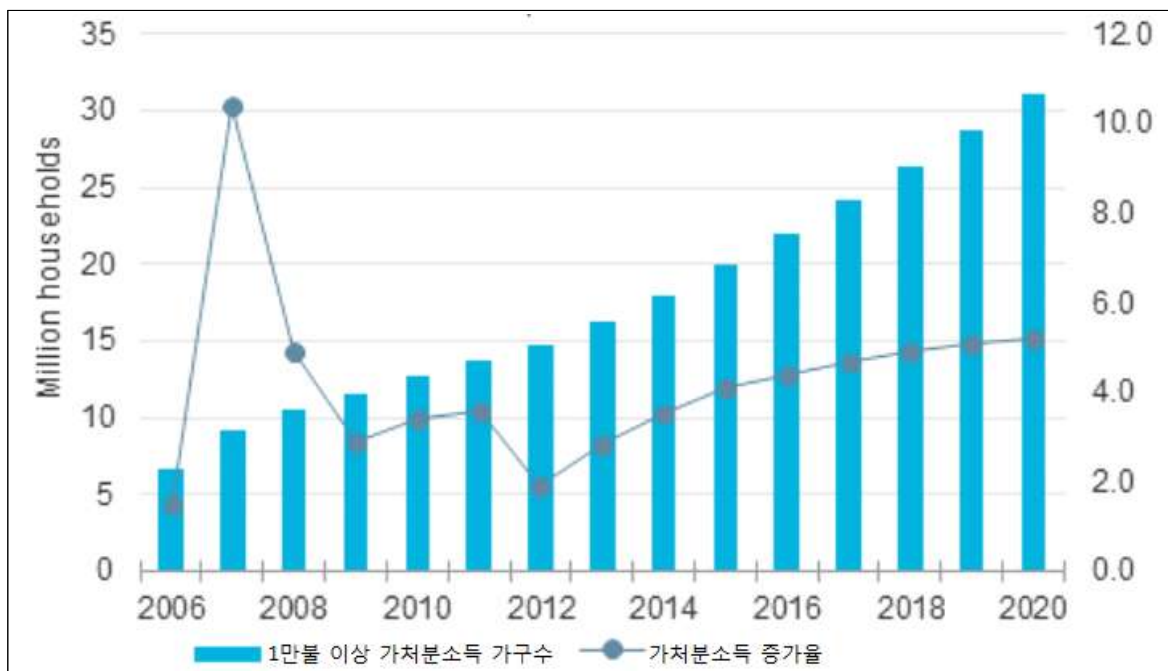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인구 규모(베트남의 2.7배, 태국의 3.7배)와 매력적인 인구구조(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은 감소, 인도네시아는 증가)로 주요 투자처로 부상



자료) Unitd Nations. 한-아세안 센터.

- (중산층 증가) 인도네시아의 중산층 가구는 '17년 4,217만 가구 (약 60%)에서 '22년 4,861만 가구로 태국(1,748만 가구)의 2.8배 수준으로 증가 전망

인도네시아 가구당 가처분소득 및 증가율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 (풍부한 천연자원) 인도네시아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천연 자원 풍부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내 최대 산유국이자 유일한 OPEC가맹국으로, '16년 석탄 수출 세계 2위, 천연가스 수출 7위, 팜오일·고무·주석·석탄 등에서 세계 1~5위의 천연자원 매장량 보유

○ 국내 정유시설 투자 정체와 국내 석유수요 급증으로 '04년 이후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량은 매년 증가

○ 인도네시아는 미가공 원유 수출비율은 1980년 75%에서 2015년 72%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정유시설 등의 자원산업 고부가가치화가 미흡한 상황

인도네시아 수출입 현황

구	분	2016	2017	증가율	점유율
수출	오 일 & 가 스 (A)	13,106	15,738	20.1	9.3
	오 일 & 가 스 외 (B)	132,081	152,990	15.8	90.7
	제조업	872	1,640	88.0	1.0
	가스채굴	44	76	71.0	0.1
	광업	12,189	14,023	15.0	8.3
	합 계 (A + B)	145,187	168,728	16.2	100
수입	오 일 & 가 스 (C)	18,740	24,308	29.7	15.5
	원유	6,731	7,060	4.9	4.5
	석유제품	10,340	14,524	40.5	9.3
	가스	1,669	2,724	63.2	1.7
	오 일 & 가 스 외 (D)	116,913	132,585	13.4	84.5
	합 계 (C + D)	135,653	156,8943	15.7	100
무역수지		9,533	11,836	19.5	-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 통계청, BPS

□ (투자환경 개선) 조코위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2016년 5월 대대적인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조치 시행

- 업종별 외국인 투자한도를 크게 완화하여 냉동창고, 영화관, 일반 식음료 업종 등 10개 분야는 외국인이 100%까지, 백화점·의료·이동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등은 67%까지 보유 허용

○ '11년 이후 직접투자 유입액은 연평균 19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규제완화 등으로 투자액 증가 전망

○ 세계은행은 Doing Business 2018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을 2014년 120위에서 2018년 72위로 평가

인도네시아 Doing Business Index, 2018

구 분	종합		창업	전력수급	자금조달	국제교역	계약이행	파산
	2014	2018						
인도네시아	120	72	144	38	55	112	145	38
대한민국	7	4	9	2	55	33	1	5
중국	96	78	93	98	68	97	5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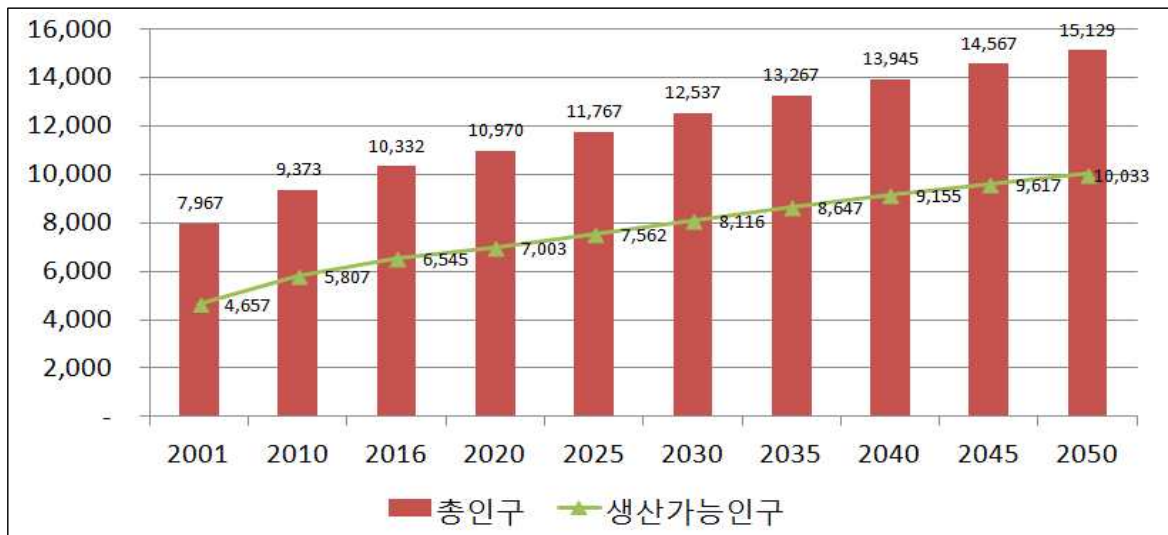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Doing Business 2013, 2017)

다. 필리핀

□ (풍부한 노동력) 높은 출산율을 바탕으로 풍부한 저임 노동력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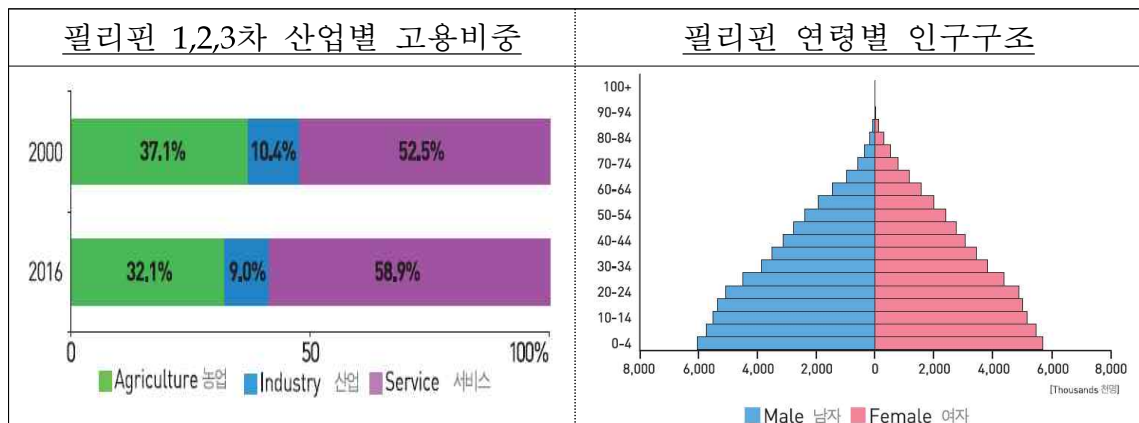
○ 필리핀 인구('16년말, 약 1억 332만명)는 205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30년 8,116만명, 2050년 1억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필리핀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향후 추이(만명)



자료) World Bank Database

- 다만, 높은 인구증가율이 빈곤층 증가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구조로 2차산업 고용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



자료) United Nations. 한-아세안 센터.

- (중산층 증가) 필리핀의 중산층 가구는 '17년 1,551만 가구(약 65%)에서 '22년 1,819만 가구로 태국(1,748만 가구)을 상회할 전망

- 최근 필리핀의 안정적인 성장, 막대한 해외근로자의 송금에 기반을 둔 국내소비 증가 등으로 중기적인 성장이 전망되나, 제조업 기반 취약으로 장기적인 경제발전은 기대하기 힘들

□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산업에 강점

- 필리핀은 풍부한 영어구사 인력, 저렴한 인건비, 인터넷 기반의 통신 인프라등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 산업이 성장세를 지속⁴⁾
 -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Tholons의 2016년 100대 세계 BPO지역 순위에 따르면, 필리핀은 세계 1위 BPO지역인 인도의 벵갈루루에 이어 마닐라와 세부지역이 각각 2위와 7위를 차지

□ 투자환경 개선은 지체

- 세계은행은 Doing Business 2018보고서에서 필리핀의 비즈니스 환경을 2014년 108위에서 2018년 113위로 평가하며, 투자환경 악화를 경고

필리핀 Doing Business Index, 2018

구 분	종합		창업	전력수급	자금조달	국제교역	계약이행	파산
	2014	2018						
필 리 핀	108	113	173	31	142	99	149	59
대 한 민 국	7	4	9	2	55	33	1	5
중 국	96	78	93	98	68	97	5	56

자료) World Bank(Doing Business 2013,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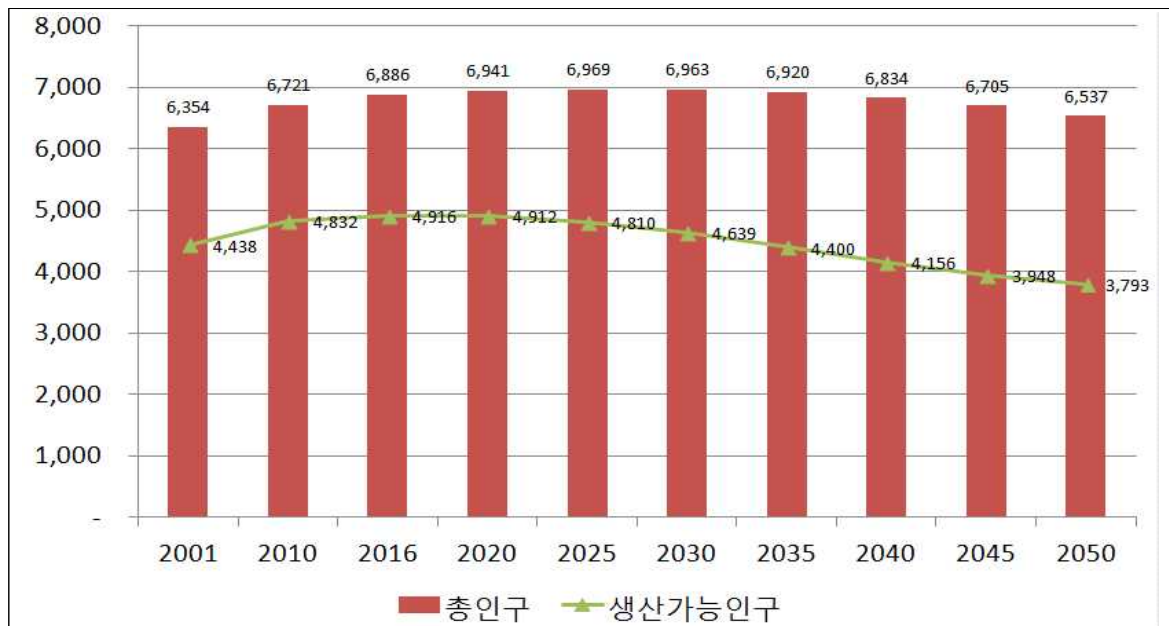
4) BPO는 콜센터를 비롯해 데이터 입력, 소프트웨어 개발 등 각종 비즈니스에서 수행되는 업무 아웃소싱 전문산업을 의미하며, 세계 BPO 시장은 2020년까지 약 2,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라. 태국

□ (생산가능인구 감소) '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감소

- 태국의 총인구('16년말, 약 6,886만명)는 2025년까지 6,969만명으로 정체된 이후 감소로 전환
-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18년 4,924만명(총인구 대비 71.2%)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50년에는 3,793만명(58.0%) 예상

태국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향후 추이(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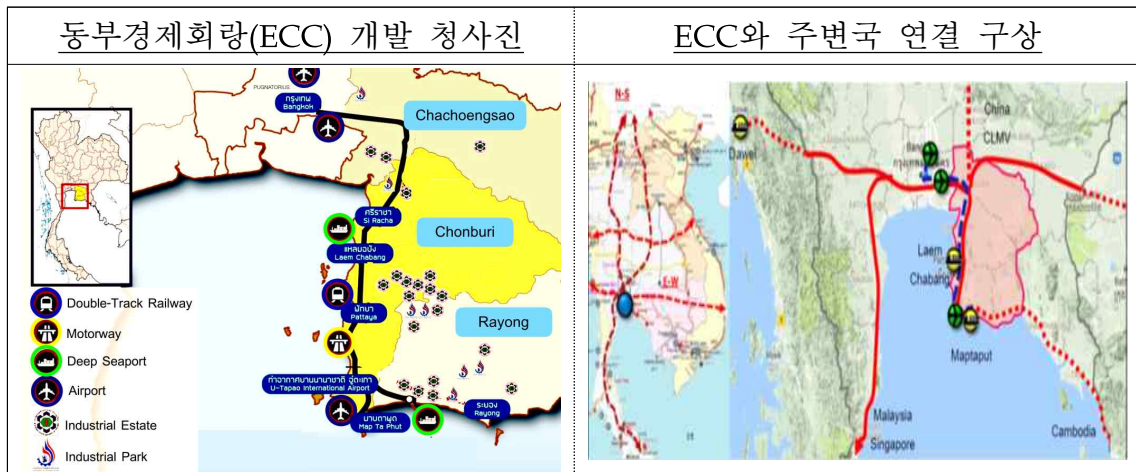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Database

□ (자본집약형 산업 육성) 태국은 일본 자동차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로봇 등 지식집약형 산업 육성에 주력

- 태국 정부는 2036년 고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태국 4.0 국가전략을 전개,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⁵⁾ 프로젝트에 '17년부터 5년간 약 4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5) ECC는 수로 방콕에서 동남부 라용을 잇는 지역을 태국정부가 아세안의 제조·물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제특구로, 태국의 ECC와 동서경제회랑(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연결), 남북경제회랑(태국, 라오스, 중국 연결)을 중심으로 인도양과 태평양, 중국남부와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을 연결 가능

- 태국은 동 프로젝트 하에서 자동차 등 5개 기존산업에 로봇 산업 등 5개의 지식집약형 산업을 추가한 육성계획을 발표



자료) 태국 투자청(BOI), KOTRA 방콕 무역관.

- (중산층 증가) 태국의 중산층 가구는 '17년 1,592만 가구(약 69%)로 인구 1억의 필리핀(1,551만 가구)보다 높은 수준이며 '22년에는 1,748만 가구로 증가 전망
- 태국의 1인당 GDP는 6,591달러로 '07년(4,470달러) 상위 중 소득국⁶⁾에 진입 후 10년간 연평균 4.7% 증가
- 태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세안 하위 중소득국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3국과 연계한 경제성장 전략 전개
- CLM 활용을 위해서 '17년부터 자국내 ODA 예산⁷⁾으로 CLM을 포함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의 인프라를 정비 추진
- CLM의 총인구는 각각 1,600만명, 686만명, 5,337만명으로 1인

6) 세계은행의 정의에 따르면 하위 중소득국은 국민 1인당 GDP가 1,026~4,035달러, 상위 중소득국은 4,036~12,475달러이며, 12,475달러를 초과하면 고소득국으로 분류

7) 태국 국경과 미얀마 경제특구(SEZ)를 연결하는 132km 의 남부경제회랑 연장 건에 대하여 태국이 45억 바트의 ODA를 제공하는 건으로 미얀마 정부는 2017년 2월 동 계획을 승인

당 GDP 1,390달러, 2,542달러, 1,264달러에 불과한 하위 중소
 득국으로 항만 및 도로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태국과 연계한
 노동집약 산업 투자가 향후 증가할 전망

- 세계은행은 Doing Business 2018보고서에서 태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2018년 26위로 싱가포르(2위), 말레이시아(24위) 다음
 으로 양호하다고 평가

아세안 각국의 Doing Business Index, 2018

구 분	종합		창업	전력수급	자금조달	국제교역	계약이행	파산
	2014	2018						
싱 가 포 르	2	2	6	12	29	42	2	27
말레이시아	6	24	111	8	20	61	44	46
태 국	18	26	36	13	42	61	44	46
브 루 네 이	59	56	58	24	2	144	61	60
베 트 남	99	68	123	64	29	94	66	129
인도네시아	120	72	144	38	55	112	145	38
필 리 핀	108	113	173	31	142	99	149	59
캄 보 디 아	137	135	183	137	20	108	179	74
라 오 스	159	141	164	149	77	124	97	168
미 얀 마	182	171	155	151	177	163	188	164
대 한 민 국	7	4	9	2	55	33	1	5
일 본	27	34	106	17	77	51	51	1
중 국	96	78	93	98	68	97	5	56

자료) World Bank(Doing Business 2013, 2017)

III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해외직접투자 현황

1. 對아세안 투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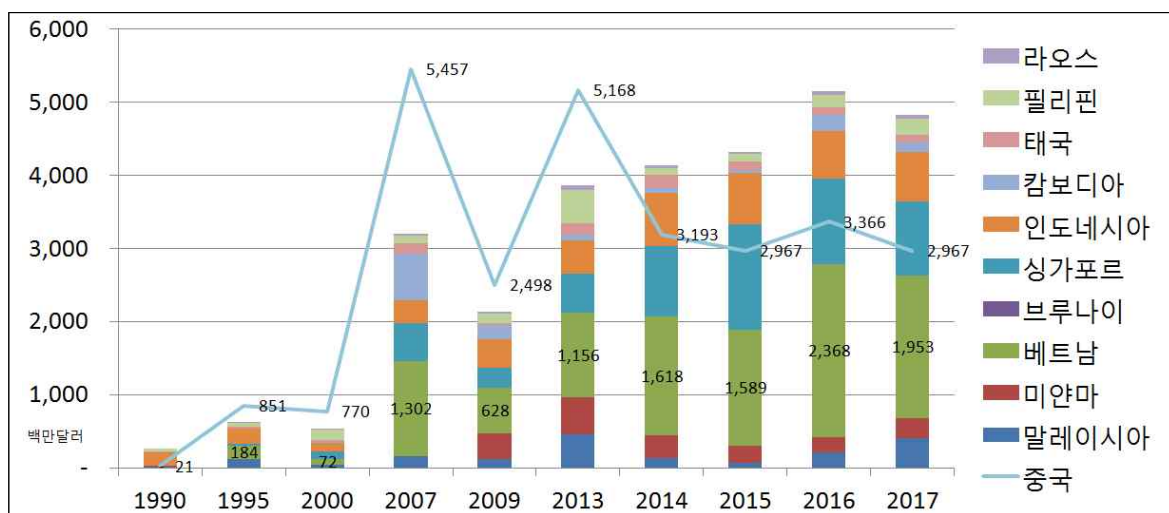
□ 對아세안 투자규모('17년)는 48.3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해외 직접투자액 434.5억 달러의 11.1%를 차지

○ 對아세안 투자는 '81년 해외직접투자 규제완화 이후, 대미 우회 수출 목적의 투자가 주류를 형성, '07년부터는 중국 제조업 대체 및 아세안 역내시장 진출 목적 투자 증가

- 對아세안 투자 추이(달러) : '91년 3.3억 → '97년 6.4억 → '08년 37.7억 → '16년 51.6억 → '17년 48.3억

* '17년말 기준 對아세안 투자액(누적) : 545.6억 달러 (총 투자액 3,973억 달러의 13.7%)

對아세안 해외직접투자 금액 및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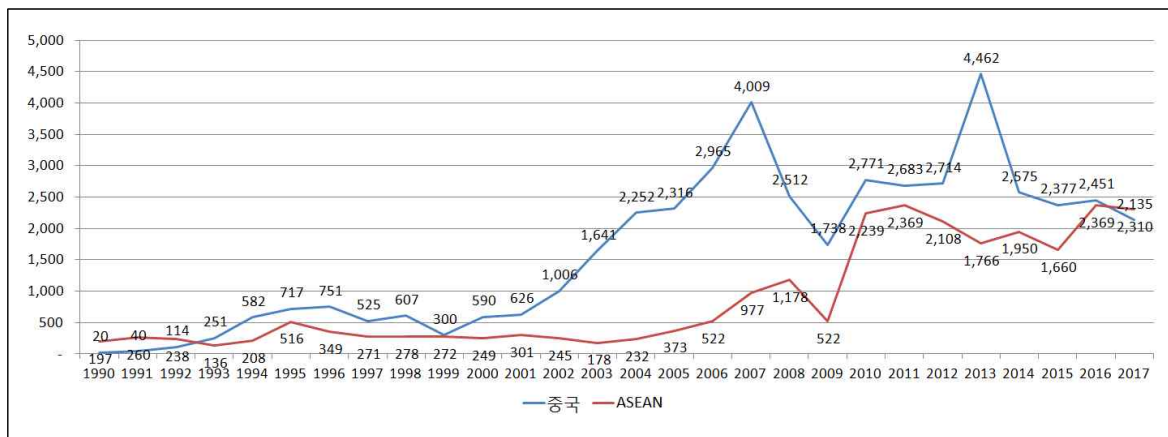


□ '80년대부터 '17년까지의 對아세안 투자 흐름을 보면, 크게 1차 확대기, 2차 확대기, 1차 정체기, 3차 확대기로 구분

- [1차 확대기('82~'86년)] 2차 오일쇼크('79년)에 따른 해외 원자재 확보 목적의 對아세안 해외투자가 증가 (연 평균 12백만 달러)
- [2차 확대기('87~'97년)] 대미 수출급증에 따른 무역흑자와 원화 강세, 무역마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제3국 수출 및 자원개발 목적의 對아세안 투자 증가 (연 평균 3.1억 달러)
- [1차 정체기('98~'05년)] 아시아 외환위기 여파로 對아세안 직접투자액은 매년 4~6억 달러 수준으로 정체 (연 평균 5.5억 달러)
- [3차 확대기('06~'17년)] 동 시기에는 중국에 투자하고 있던 생산설비의 일부가 아세안으로 이전되면서 對아세안 제조업 투자액이 급증하여, '17년에는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최대 제조업 투자국가로 등장 (연 평균 38.9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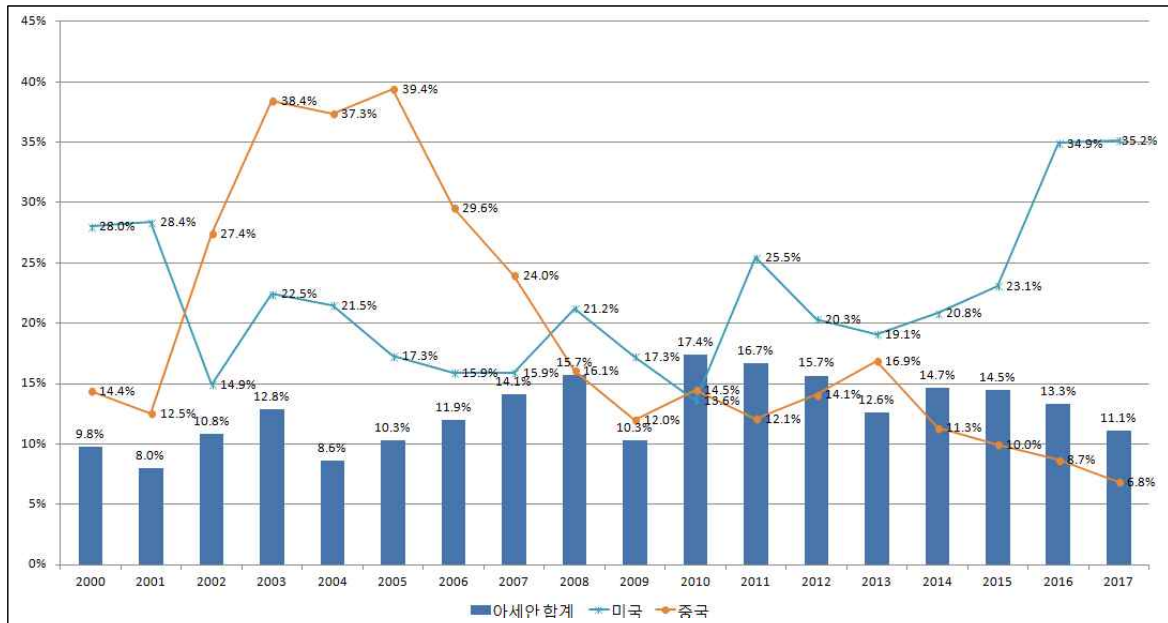
對아세안 및 중국 제조업 직접투자금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투자비중은 '10년부터 대중 투자를 추월
- 對아세안 투자 비중 : '04년 8.6% → '08년 15.7% → '13년 12.6% → '17년 11.1%
- 대중국 투자 비중 : '04년 37.3% → '08년 16.1% → '13년 16.9% → '17년 6.8%

對아세안 및 중국 투자비중 추이



□ '00년대까지의 제조업 중심의 해외직접투자가 '10년 이후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 대한 금융보험업과 도소매업 투자중심으로 이행함에 따라 對아세안 투자비중이 감소

○ 제조업 직접투자 대상국이 중국 중심에서 최근 베트남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이 이전, 전체적인 제조업 투자비중은 감소세

<우리나라의 상위 5개 투자대상국 변화>				<우리나라의 상위 5개 투자업종 변화>			
2000년		2017년		2000년		2017년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순위	업종명	순위	업종명
1	미국 (15억달러)	1	미국 (153억달러)	1	제조업 (16억달러)	1	금융보험업 (127억달러)
2	중국 (8억달러)	2	케이만군도 (50억달러)	2	과학기술업 (14억달러)	2	도소매업 (9억달러)
3	홍콩 (3억달러)	3	중국 (30억달러)	3	도소매업 (9억달러)	3	제조업 (78억달러)
4	필리핀 (1억달러)	4	홍콩 (30억달러)	4	부동산임대업 (4억달러)	4	부동산임대업 (38억달러)
5	인도네시아 (1억달러)	5	베트남 (20억달러)	5	숙박음식점업 (2억달러)	5	통신정보업 (23억달러)

2. 對아세안 투자 세부 현황

가. 국가별 투자동향

□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투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3국에 집중

○ '17년 아세안 투자액 48.3억 달러 중 베트남은 19.5억 달러 (40.4%)를 차지하였으며, 싱가포르(10.1억 달러, 21.0%) 및 인도네시아(6.7억 달러, 13.8%)가 각각 2, 3순위의 투자비중을 차지

○ 누적 투자기준으로는 베트남 172억 달러(31.5%), 인도네시아 103억 달러(18.9%), 싱가포르 99억 달러(18.1%)를 기록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해외직접투자 추이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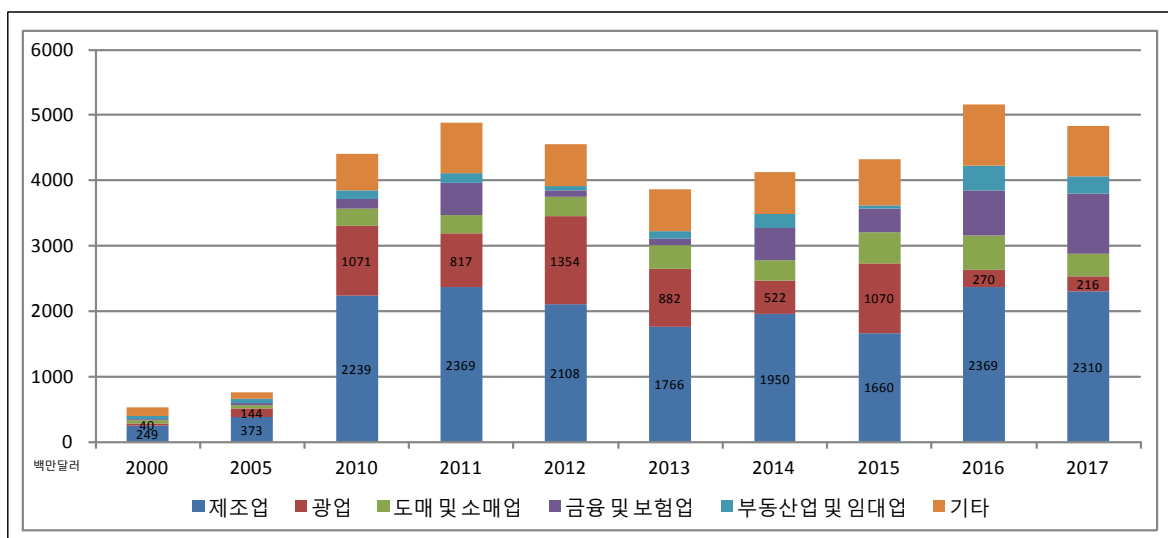
구 분	2000	2015	2016	2017		누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베 트 남	716	1,589	2,368	1,953	40.4	17,194	31.5
인 도 네 시 아	119	698	659	667	13.8	10,293	18.9
싱 가 포 르	108	1,445	1,167	1,013	21.0	9,860	18.1
말 레 이 시 아	34	59	202	403	8.4	5,139	9.4
필 리 핀	145	104	163	217	4.5	3,697	6.8
미 얀 마	9	244	213	277	5.7	2,960	5.4
태 국	34	109	112	104	2.2	2,524	4.6
캄 보 디 아	4	42	215	137	2.8	2,431	4.5
라 오 스	-	27	58	57	1.2	447	0.8
브 루 나 이	-	-	0.1	1	0.02	13	0.02
합 계	524	4,318	5,158	4,829	100	54,559	100

- 누적 투자기준으로 미국(939.4억 달러, 23.6%), 중국(588.3억 달러, 14.8%)에 이어 아세안(545.6억 달러, 13.7%)은 3위의 투자처로 부상
- '17년 기준 베트남은 제조업 투자(13.9억 달러)가 전체 투자(19.5억 달러)의 71.3%를 차지, 싱가포르의 금융보험업(2.6억 달러, 25.4%), 도소매업(1.4억 달러, 13.6%) 등 서비스업 중심
- 국가별 투자업종을 보면, 베트남은 제조업, 인도네시아는 제조업과 광업, 싱가포르는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 중심으로 투자
- 베트남은 제조업(107억 달러, 62%), 인도네시아는 제조업(48억 달러, 47%), 광업(22억 달러, 21%), 싱가포르는 도소매업(30억 달러, 30%), 금융보험업종(12억 달러, 12%)에 투자 (누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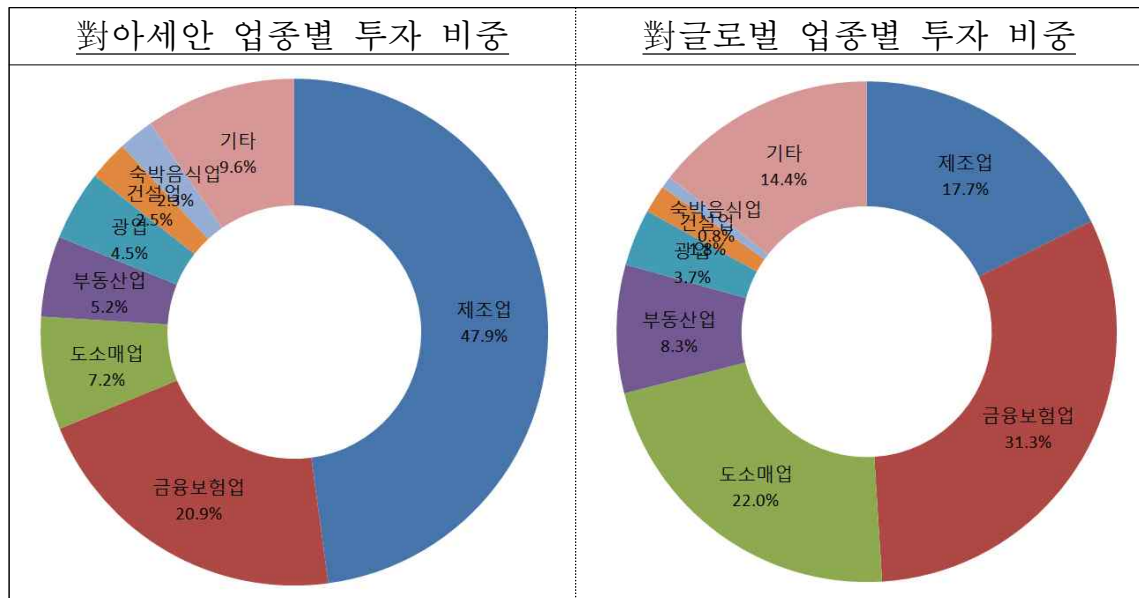
나. 업종별 투자동향

- 2017년 對아세안 투자액 48.3억 달러 중 제조업이 23.1억 달러(45.7%)를 차지하였으며, 금융보험업(9.2억 달러, 19.0%) 및 도소매업(3.5억 달러, 7.2%)이 각각 2, 3순위의 투자비중을 차지

對아세안 업종별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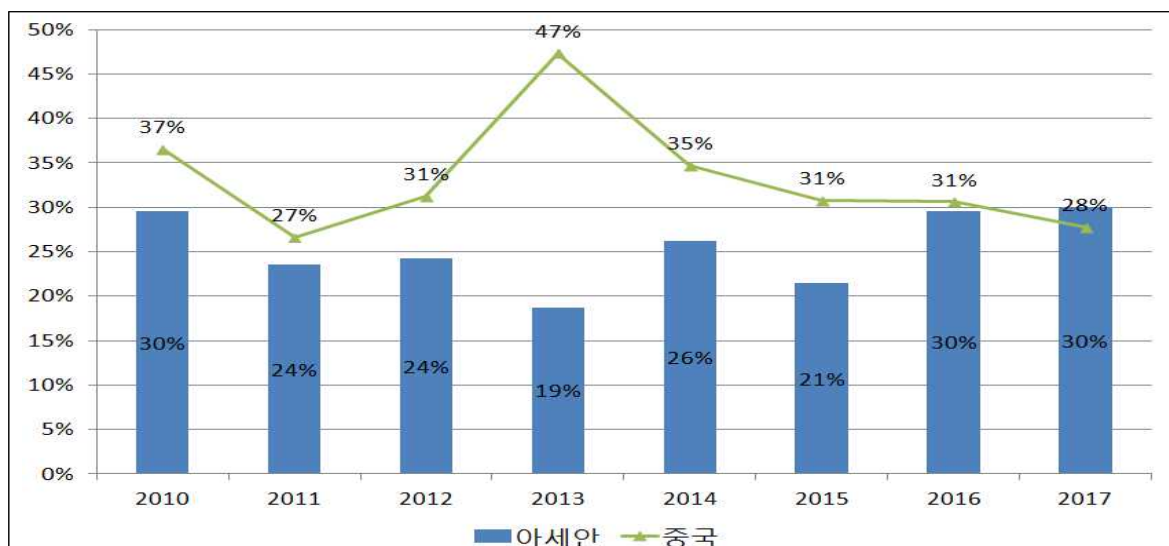


- '17년 기준 對아세안 제조업 투자비중(45.7%)은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액 중 제조업 비중(17.7%) 대비 높은 수준으로 아세안이 중국을 잇는 우리나라의 해외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



- 특히, '17년 중 제조업중 투자를 보면, 과거 최대투자국이었던 중국을 넘어 아세안이 최대투자국으로 등장하여 글로벌 생산 기지로 아세안의 제조업 투자매력도가 증가하였음을 시사

우리나라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비중



□ 시기별로 보면 '90년대까지는 아세안의 저임 노동력 활용 목적의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00년대 이후 금융보험업과 도소매업 등 서비스산업과 광업에 대한 투자 비중 증가

○ '90년대에는 전자부품 및 의복, 섬유제품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으나, '00년대 이후로는 광업 및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가 집중

시기별 對아세안 투자 업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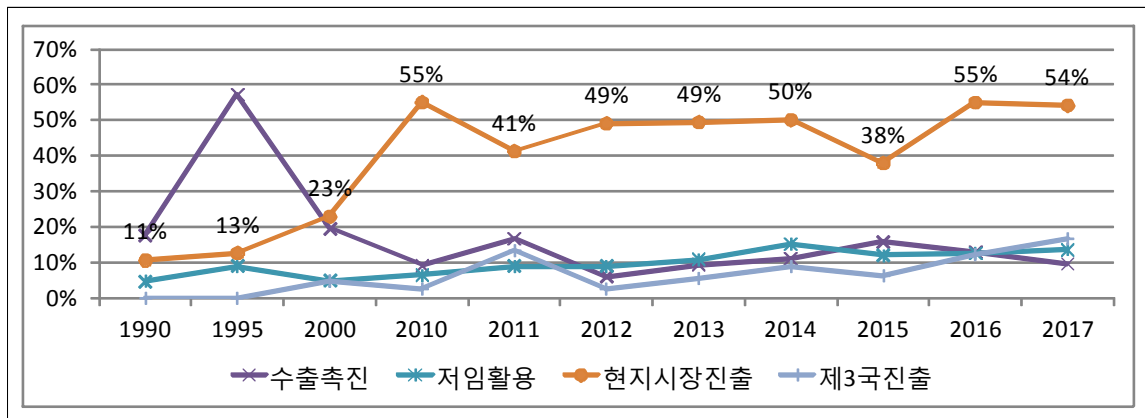
1995	2000	2005	2010	2017
제조업 (83.5%)	제조업 (47.5%)	제조업 (49.4%)	제조업 (50.7%)	제조업 (47.8%)
건설업 (4.5%)	전기가스수도 (15.5%)	광업 (19.0%)	광업 (24.3%)	금융보험업 (19.0%)
정보서비스업 (3.2%)	광업 (7.6%)	부동산업 (8.8%)	도소매업 (6.0%)	도소매업 (7.2%)
도소매업 (2.9%)	도소매업 (7.6%)	도소매업 (6.2%)	금융보험업 (3.1%)	부동산업 (5.7%)
부동산업 (2.3%)	부동산업 (7.0%)	금융보험업 (4.4%)	부동산업 (3.1%)	광업 (4.5%)
광업 (1.7%)	음식점업 (5.3%)	음식점업 (3.2%)	정보서비스업 (2.7%)	정보서비스업 (3.2%)

다. 투자목적별 동향

□ 對아세안 진출 초기인 '90년대에는 자원개발 및 수출촉진 목적의 투자 비중이 높았으나, '00년대 이후에는 아세안 현지 시장 진출목적의 투자가 중심

○ 현지시장 진출목적 : '95년 11% → '00년 23% → '10년 55%
→ '17년 54%

투자목적별 비중 추이



- 아세안 진출 현지법인의 매출구조 분석 결과, 현지화 영업방식의 확대에 의해 현지매출(67%) 비중이 한국 앞 역수출(16%)보다 4.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아세안 현지법인의 매출 구조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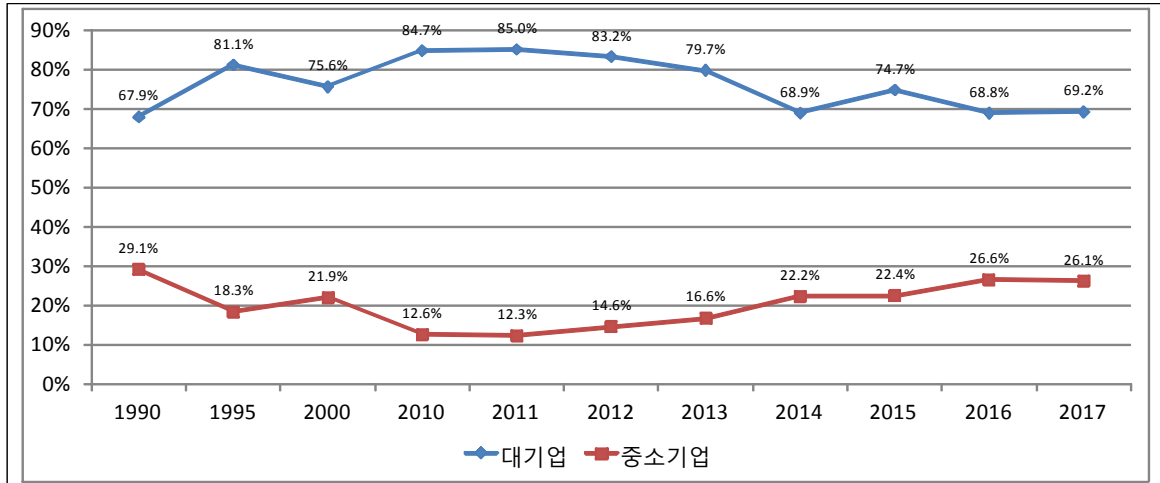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현지매출	64.2	62.9	66.5	67.0	67.3
한국수출	19.2	17.0	15.7	15.3	15.7
제3국매출	16.6	20.1	17.7	17.7	16.9
현지법인수	5,204	5,738	5,666	6,045	6,225

라. 기업규모별 동향

- 對아세안 투자('17년)는 중소기업(22.2%) 보다 대기업(69.2%)이 주도
- 대기업을 중심으로 對아세안 투자가 확대되면서 대기업 투자 비중이 2010년대 초에는 85%까지 확대

- '90년대 초기의 저부가 전자부품, 섬유, 의복 중심의 투자가 '00년대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업종에서 동반투자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투자비중은 '17년에는 26%로 확대

기업규모별 투자비중 추이



1. 對아세안 투자 성과

가. 아세안 현지법인의 매출액 및 수익성

- 당행이 매년 조사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경영분석’에서 최근 5년간의 아세안과 중국, 미국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비교

투자 성과 분석 대상 현지법인 수

(단위: 개사, 억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법인수	투자 잔액	법인수	투자 잔액	법인수	투자 잔액	법인수	투자 잔액	법인수	투자 잔액
아세안	1,115	158	1,285	191	1,322	207	1,465	223	1,583	252
중국	2,005	285	2,159	336	2,019	334	2,032	368	2,036	399
미국	663	219	722	253	727	281	813	333	855	393
전세계	5,204	1,186	5,738	1,345	5,666	1,510	6,045	1,681	6,225	1,833

- (매출액) 아세안 지역 진출 현지법인의 2016년 총 매출액은 1,052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현지법인 총 매출액 6,422억 달러의 16.3%를 차지

- ‘13년부터 아세안 진출 현지법인의 매출 비중은 소폭 증가

* 매출액(비중) : ‘13년 1,071억 달러(14.3%) → ‘16년 1,052억 달러(16.3%)

- ‘14년부터 아세안에 대한 투자액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상회하고 있으나, 현지법인의 총매출액에서는 최근 3년(‘14~‘16년) 평균 매출액이 중국의 48.1% 수준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현지법인의 해외투자 잔액이 '16년 기준 아세안이 중국(399억 달러)의 63.2%(212억 달러)에 불과하고, 최근 20여년간의 중국 고도성장의 결과 중국투자 현지법인의 매출액이 높게 나타남

- 아세안내 국가별로는 싱가포르(40.3%), 베트남(28.3%), 인도네시아(15.2%)의 매출액 비중이 높음

최근 5년간 아세안 현지법인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아세안	109,215	107,092	111,371	95,154	105,174
싱가포르	57,062	51,203	55,247	35,771	42,395
베트남	12,973	16,366	16,269	22,137	29,848
인도네시아	17,179	17,602	18,742	18,427	15,978
말레이시아	8,421	8,784	8,676	7,227	6,136
중국	196,522	250,151	241,175	213,639	192,931
미국	115,028	122,349	127,860	147,377	142,513
전세계	674,097	745,944	722,230	676,597	642,168

- (당기순이익)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기준 21.3억 달러로 우리나라 현지법인 총 당기순이익 90.3억 달러의 23.6%를 점유
- 중국 진출 현지법인의 순이익은 75.5억달러로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순이익 합계 96.9억 달러는 우리나라 현지법인 순이익의 107%로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

최근 5년간 아세안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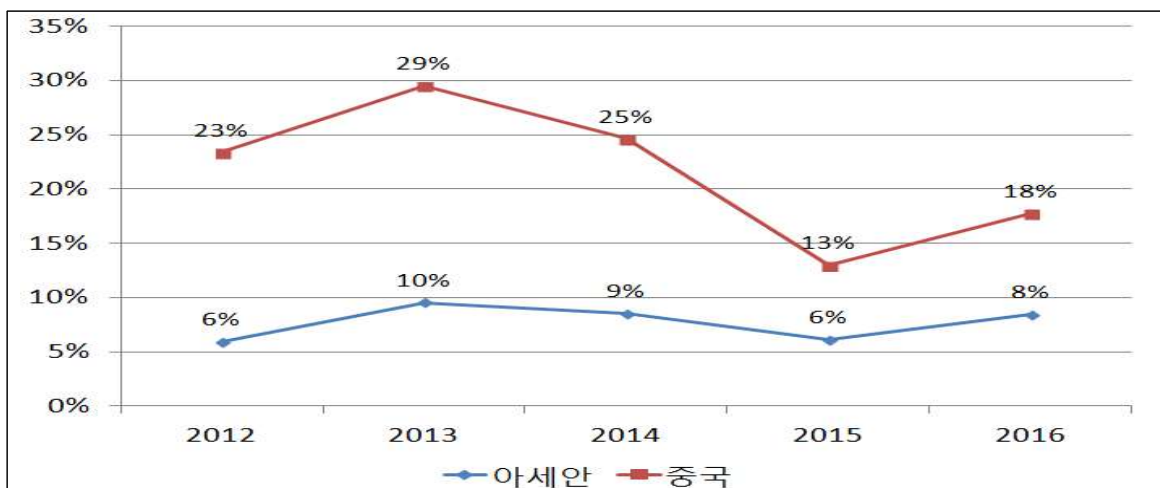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아세안	1,130	1,600	1,362	761	2,131
싱가포르	△199	903	626	840	915
베트남	79	311	102	△143	550
인도네시아	911	276	174	△341	589
말레이시아	56	△10	58	34	139
중국	6,028	8,659	7,940	5,758	7,555
미국	1,653	1,099	2,121	△4,709	△102
전세계	14,983	13,505	12,022	△4,042	9,032

□ (투자수익) '16년 한국투자자가 아세안 현지법인에서 취득한 투자수익⁸⁾은 21.5억 달러이며, 이를 투자잔액으로 나눈 투자수익률은 8.5%로 전년(6.1%)대비 증가

○ '16년 아세안 투자수익 21.5억 달러는 투자자순이익 17.5억 달러, 대부이자 0.8억 달러, 로열티 3.2억 달러로 구성

아세안과 중국의 투자수익률 추이



8) 투자수익 : 투자자순이익(당기순이익×한국투자자 지분율) + 로열티 + 대부이자

- '16년 중국 현지법인 투자수익은 71.5억 달러(투자자순이익 57.6억 달러, 대부이자 0.3억 달러, 로열티 13.6억 달러)이며, 투자수익률은 중국이 아세안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

최근 5년간 아세안 현지법인 투자수익*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아세안	942	1,838	1,801	1,434	2,149
싱가포르	△212	884	765	875	909
베트남	288	545	242	44	708
인도네시아	342	76	171	△214	300
말레이시아	92	35	115	156	295
중국	7,130	10,152	8,515	4,988	7,145
미국	2,594	2,028	2,243	△624	876
전세계	14,696	16,917	13,596	3,653	11,534

* 투자수익 : 투자자순이익(당기순이익X한국 지분율)+로열티+대부이자

나. 모기업과 현지법인의 매출입 현황

- 최근 5년간 아세안 진출 현지법인의 한국으로의 수출비중은 소폭 감소한 반면, 현지매출과 제3국 매출 비중이 소폭 높아져 동남아 지역의 생산-소비 네트워크로의 편입 흐름이 강화되는 것을 시사

아세안 현지법인의 매출 구조 현황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현지매출	48.3	50.2	51.6	50.2	48.5
한국수출	33.5	25.7	26.1	23.6	28.9
제3국매출	18.2	24.1	22.3	26.2	22.6
현지법인수	1,115	1,285	1,322	1,465	1,583

□ 아세안 지역의 매출 구조를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중국, 미국 진출 현지법인보다 **현지매출 비중은 낮은 반면, 제3국 매출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기능이 현지 소비시장보다는 중국 등 **제3국 판매 목적의 생산기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

아세안 및 중국, 미국 현지법인의 매출 구조 현황('16년)

(단위: %)

구 분	아세안	중국	미국
현지매출	48.5	64.4	88.3
한국수출	28.9	30.5	15.1
제3국매출	22.6	5.1	10.2

□ 아세안 진출 현지법인의 매입구조를 보면, 최근 5년간 한국 원·부자재 매입 비중이 지속 증가하여 우리기업의 아세안 수출증가에 기여

아세안 현지법인의 매입 구조 현황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현지매입	32.7	37.7	37.7	35.1	36.1
한국수입	32.8	38.9	38.9	42.0	40.3
제3국매입	34.4	23.4	23.4	22.9	23.6

□ 우리나라의 주요 제조업 생산기지인 아세안과 중국의 매입 구조를 비교해 보면, 아세안은 중국보다 현지매입 비중은 낮은 반면, 제3국 매입 비중은 높은 수준

아세안 및 중국, 미국 현지법인의 매입 구조 현황('16년)

(단위: %)

구 분	아세안	중국	미국
현지매입	36.1	60.9	32.5
한국수입	40.3	28.7	60.2
제3국매입	23.6	10.4	7.3

- 최근 5년 간 아세안 현지법인의 현지매입 중 한국 관계기업 비중이 평균 90.2%로 중국의 78.9% 대비 높게 나타나, 현지 중소기업을 생산 네트워크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
- 특히, 중국의 생산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3국 매입(중국 등)으로 부품을 현지 생산활동에 투입하기보다는 현지 중소기업을 활용한 한국생산 네트워크를 구성 노력 필요

2. 향후 對아세안 투자 방향

- (투자 분산) 중국 및 미국에 집중된 해외직접투자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장가능성과 우리나라와의 교역비중이 높은 아세안으로의 투자 다각화 필요
- 최근 5년('13~17년)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27.8%, 10.3%의 비중을 차지하여 1,2위를 기록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 합계	
							금액	비중
미	국	59	59	69	135	153	474	27.8
중	국	52	32	30	34	30	177	10.3
케 이 만 군 도		16	23	31	45	50	164	9.6
베 트 남		12	16	16	24	20	87	5.1
홍 쿡		9	6	19	16	30	80	4.7
아 세 안		39	41	43	52	48	223	13.1
전 세 계 합 계		306	282	298	388	434	1,708	-

- 일본기업은 아세안 지역 생산네트워크를 지난 '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현지기업과 현지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원재료 및 부품비율을 높여가고 있음.
- 수송기계·기구와 같이 부품 및 원자재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은 현지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을 올리고, 현지기업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전자부품 등은 일본 조달 비중이 상승

일본의 'China plus One', 'Thai plus One' 전략

- 일본기업의 아세안 지역 투자전략은 '05년 이후 'China plus One'에서, '10년 이후 태국 투자환경의 악화를 계기로 'Thai plus One'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일본기업의 아세안 내 가장 큰 생산거점이었던 태국에서 홍수 등 자연재해 증가, 근로자 임금 급상승, 근로자 부족 등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자,
 - ① 태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동차 및 전기전자 서플라이체인을 노동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으로 역내이전하는 생산거점 이전투자와,
 - ② 태국에 설립한 노동집약적 업종이나 모듈화된 제품의 생산공장을 태국 주변의 CLM 등지로 이전하거나 신규 설립하고, 방콕을 지역내 최종 생산거점으로 재구축하는 투자형태로 구분

□ (지역 생산네트워크 구축) 對아세안 투자는 아세안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가맹국간 투자 우위성과 특성에 따라 분산투자하여 역내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바람직

- 아세안을 하나의 소비시장이자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복합전략을 세우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제조업 생산거점지역, 말레이시아는 서비스산업 거점, 싱가포르를 역내총괄본부와 R&D 센터로 활용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CLM 지역은 저렴한 노동비용을 활용하여 역내 제조업 생산네트워크로 편입 추진

□ (현지화 추진) 원자재·부품의 현지조달비중 제고로 생산효율성 향상과 상생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여 현지 대기업 앞 안정적 거래처 확보, 조기 경영 안정 구축 등의 이점이 있으나, 대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경영환경이 좌우

- 최근 5년간 아세안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입구조를 보면 현지 매입 비중이 하락하고 한국수입 비중이 증가하여 현지법인의 현지화가 지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아세안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입 구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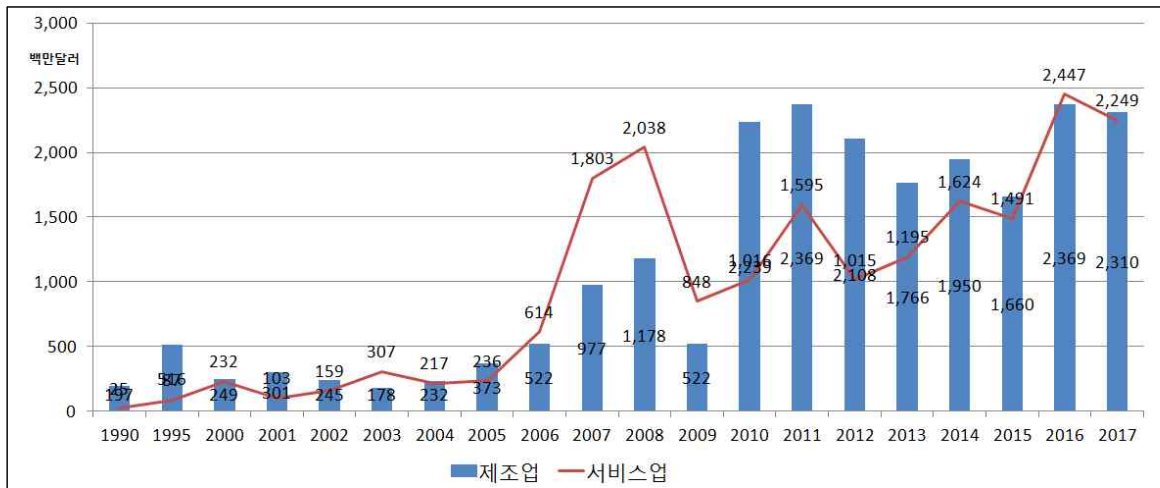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현지매입	43.9	36.9	34.9	31.0	34.2
한국수입	31.9	40.0	35.1	41.6	44.2
제3국매입	24.2	23.0	30.0	27.4	21.6

- 현지 진출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상생경영, 현지국내 규제 강화(역내 원재료 비중 규제)등을 고려하여 현지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부품과 소재만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현지 생산이 유리한 원자재는 현지기업에서 조달할 필요
- (현지시장 확보) 아세안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세와 중산층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업⁹⁾ 투자비중 확대 필요
- 우리나라의 '00년 이후 대아시안 투자는 제조업 43.1%, 서비스업 38.3%로 제조업에 집중, '10년 이후 중국의 투자환경 악화로 아세안 제조업 투자액이 서비스업 투자액을 상회

9) 서비스업의 범위는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과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으로 정의

한국의 對아세안 제조업 서비스업 투자 추이



한국과 일본의 對아세안 제조업·서비스산업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한국	4,318	-	5,158	-	4,829	-
(제조업)	1,660	43.1	2,370	46.0	2,311	47.9
(서비스산업)	1,491	38.5	2,447	47.4	2,248	46.5
일본*	20,603	-	△5,622	-	19,963	-
(제조업)	10,913	53.0	7,450	-	8,206	41.1
(서비스산업)	7,902	38.4	△13,573*	-	10,987	55.0

* 한국 투자는 송금액 기준, 일본 투자액은 순투자액(송금액-회수액) 기준

* 일본은 '16년 소프트뱅크 그룹의 싱가포르 자회사가 모회사 앞 대규모 배당(2조 3,728억엔, 약 250억 달러) 실시로, 서비스산업 직접투자는 순회수 기록

- '16년을 제외하면 일본은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업 투자가 제조업 투자를 상회

○ 아세안의 총인구 6.4억명과 성장하는 중산층을 고려할 때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과 같은 현지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전략과 현지화의 중요성 심화

- 현지 시장정보 및 아국 기업의 현지 인지도 부족, 장기간의 투자금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지업체 제휴 또는 M&A를 통한 기존 영업망 확보로 시장 개척이 바람직

□ (아세안 인프라 투자 확대) 아세안은 역내 연계성(connectivity) 개선을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개발을 추진

- 아세안 연계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사업은 2016~30년까지 3조 3천억 달러의 수요가 추정되는 거대 규모 사업으로, 토목·건축 등의 우리 기업이 진출 가능한 유망시장
- 아세안 국가들은 역내 연계성 개선을 위한 도로, 철도, 항만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계획, 발표하고 있으나, 정부 투자재원은 3~40%에 불과, 나머지는 원조자금과 민간자금에 의존

아세안에 대한 ODA(공적원조) 실적('15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아세안
호주	49.2	373.0	36.4	55.4	92.5	103.9	716.8(17.7%)
프랑스	65.8	66.5	12.0	4.2	△13.8	84.7	234.2(5.8%)
미국	86.1	130.5	25.3	113.6	250.3	80.1	733.8(18.2%)
한국	65.9	39.6	87.6	21.2	44.0	217.2	480.7(11.9%)
영국	4.3	30.4	3.6	174.0	13.9	18.8	259.3(6.4%)
독일	28.9	311.5	25.6	18.6	32.6	131.2	563.2(13.9%)
캐나다	4.1	14.1	1.9	12.6	15.8	19.9	68.4(1.7%)
스웨덴	24.4	1.8	△0.6	23.9	5.0	△0.9	59.2(1.5%)
일본	101.8	△999.1	102.7	351.1	70.3	1,074.9	570.1(14.1%)
덴마크	0.3	4.3	△0.1	7.4	0.3	13.1	25.0(0.6%)
DAC 합계*	468.2	4.7	348.7	880.1	533.9	1,820.7	4,039.3(100%)
다국적 원조기구	205.1	△34.6	79.2	281.1	△18.6	1,331.6	1,915.7
기타국가	3.8	△3.5	43.3	7.3	0.1	5.2	59.1
합계	677.1	△33.4	471.1	1,168.5	515.3	3,157.4	6,014.1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25개 회원국

자료) OECD Stat(OECD), Korea-ASEAN Centre.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세안인프라투자기금(AIIF),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일본 및 중국의 ODA 등을 통한 아세안 국경간 인프라 투자 확대
- 일본과 중국은 아세안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가전략을 세우고 풍부한 민관 자금력을 활용한 인프라 수출전략 전개
 - 일본은 ADB와 연계하여 '16~'20년 간 1,100억 달러를 아시아 지역 인프라 사업에 제공
 - 중국은 AIIB 기금과 일대일로 프로젝트, 란창-메콩 정상회의(3억 달러 원조) 등을 통한 인프라사업 참가
- 인프라시장과 에너지 등 자원 부문은 대규모 자본조달 능력이 가장 큰 경쟁력으로, 정부차원에서 민간과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조유자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
- 또한, 우리나라는 '17년 11월 아태경제협력(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EAS) 회의 등에서 신남방정책¹⁰⁾을 발표
- 아세안의 인프라 개발사업 참여는 아세안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협력강화 전략이며, 신남방정책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10) 한반도를 중심에 놓고 아세안-인도를 연결하는 신남방정책과 러시아, 몽골, 중앙아를 잇는 신북방정책을 바탕으로 번영을 통한 평화 실현이 현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중 한 축을 형성

VI 결 론

1. 한국의 아세안 투자 중요도 상승

□ 한중 수교(1992년) 이후 한국의 아시아 투자는 중국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2010년부터 아세안 투자가 중국투자를 추월

- 아세안에 대한 전세계 FDI는 '02년 중국의 1/3 수준에 그쳤으나, 중국 투자환경이 악화한 '10년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10~16년간 대중국 외국인 투자액의 약 91%)으로 확대
-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액(2016년) 745억 달러 중 아세안 현지 법인앞 수출액은 348억 달러(47%)이며, 수출품목의 대부분은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로 국내산업의 양적 성장에 기여
- 우리나라는 대중 투자를 통해 배당, 로열티 수입 등으로 연간 10~20억 달러의 투자수익 발생

* 對아세안 투자 수익(억달러) : 2012년 9억, 2014년 18억, 2016년 21억

□ 對아세안투자 확대로 중국 및 미국에 집중된 해외직접투자의 리스크회피 및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의존도 집중 완화 필요

- 한국의 아세안투자는 업종별로는 제조업(46%)에 집중되어 전세계의 對아세안 제조업 투자비중(8%)보다 높은 편
- 국가별로는 베트남(40%), 싱가포르(21%)에 집중되어, 아세안 10개국이 가진 투자우위성에 따른 분산투자 필요
- 한·중 교역비중은 '17년 23% 수준으로 '09년 이후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 다변화 전략과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에 대한 투자확대를 검토할 필요

2. 향후 과제

- (투자 분산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 아세안 지역에 선진출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아세안 역내생산 네트워크를 구성, 투자 다각화 필요
 - 아세안 10개국이 가진 비교우위(노동력, 평균임금, 중산층 규모, 투자제도 등)를 활용하여 생산거점의 다변화
 - 일본의 'China plus One', 'Thai plus One' 전략을 참고하여, 생산공정을 아세안 역내 전체로 확대, 생산효율성 제고 노력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제조업 생산거점지역, 말레이시아는 서비스산업 거점, 싱가포르를 역내총괄본부와 R&D 센터로 활용하는 전략하에 현지 기업을 포함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
- (현지화 추진 및 현지시장 확보) 원자재·부품의 현지조달비중 제고로 생산효율성과 기업가치를 확보하고, 현지시장 진출
 - 최근 아세안 제조업 현지법인의 현지매입 비중이 하락하고 한국 수입 비중이 증가하여 현지화가 지체
 - * 현지매입 비중 : 2012년 44% → 2014년 35% → 2016년 34%
 - * 한국수입 비중 : 2012년 32% → 2014년 35% → 2016년 44%
 - 현지법인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상생경영 등을 고려하여 국내 생산이 불가피한 부품과 소재만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현지 생산이 유리한 원자재는 현지기업에서 조달

-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단계 중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디자인, R&D, 주요부품을 위한 국내투자는 늘리되, 지역생산 네트워크에 현지기업을 포함시켜 생산효율화에 주력
 - 원자재 현지매입비중이 61%인 중국 현지법인의 투자수익률(5년 평균 22%)이 현지매입비중 36%인 아세안(5년 평균 7.8%)의 2.8배 이상인 점을 감안, 생산효율화가 급선무
- 아세안의 총인구 6.4억명과 성장하는 중산층을 고려할 때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과 같은 현지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전략과 현지화의 중요성 심화
- 효과적인 아세안 소비재 시장 진입을 위해 현지 고객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로컬기업과의 제휴 또는 M&A를 통한 시장 개척 고려
- (아세안 인프라투자 확대) 아세안은 역내 연계성(connectivity) 개선을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개발을 추진
 - 아세안 연계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사업은 2016~30년까지 3조 3천억 달러의 수요가 추정되나, 정부 투자재원은 30~40%에 불과, 나머지는 원조자금과 민간자금에 의존
 - 일본과 중국은 아세안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가전략을 세우고 풍부한 ADB, AIIB 등 민관 자금력을 활용한 인프라 수출전략 전개
 - 인프라시장과 에너지 등 자원 부문은 대규모 자본조달 능력이 가장 큰 경쟁력인 점을 감안, 정부차원에서 민간과 국제금융 기구와의 협조유자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

< 참고문헌 >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 2016
2. _____, “아세안·중국 경제관계의 심화와 전망”, 2017
3. _____, “필리핀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국·필리핀 경제협력 방향”, 2013
4. 한국무역협회, “일본을 통해 본 차이나 리스크 대응 전략과 시사점”, 2017
5. _____, “인도네시아의 인구구조와 소비시장”, 2017
6. _____, “아세안 주요국 서비스시장의 동향 및 진출과제”, 2014
7. KOTRA, “일본 서비스기업의 대아세안 진출전략 분석과 시사점”, 2017
8.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 전략”, 2016
9.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아세안 신흥국 수출시장에 주목하자”, 2013
10. _____, “Post China,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기회요인과 시사점”, 2017
11. _____, “아세안 주요 4개국의 성장잠재력 및 시사점”, 2015
12. 三浦 有史, “ASEAN經濟共同体（AEC）の行方”, 2016
13. 西口清勝, “日本のASEAN直接投資の新しい波”, 2017
14. MIZUHO Research & Analysis, “成長市場ASEANをいかに攻略するか”, 2017
15. 山本肇, “ASEANの自動車産業とタイ+1 戦略”, 2014
16. 舩山誠一, “中堅・中小企業のチャイナプラスワン戦略の枠組み”, 2014
17. 三浦 有史, “ASEAN經濟共同体（AEC）の行方”, 2016
1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정보시스템 <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
19. 한아세안센터, “2017 ASEAN&KOREA 통계집”, 2017
20. UNCTAD, “2017 ASEAN Investment Report”, 2017